

제3장

문화유적에 나타난 대왕마을

1. 전통시대의 대왕마을

‘대왕마을’이라 함은 본래 광주군(廣州郡) 대왕면(大旺面) 관할의 신촌(新村), 오야(梧野), 심곡(深谷), 시흥(始興), 둔전(屯田), 수서(水西), 사촌(沙村), 송현(松峴), 금현(金峴), 둔토(遁土), 노상(路上), 노하(路下), 등자(登子), 고산(高山), 은곡(隱谷), 세천(細川), 괴하(槐下), 울현(栗峴), 일원(逸院), 지곡(池谷), 자양(紫陽)의 21개 동리를 가리킨다.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사촌리와 송현동이 통합되어 사송동이 되고, 노상동과 청계산 밑 적취리가 합쳐져 상적동이 되었으며, 금현동과 둔토리는 금토동, 고산동과 등자리는 고등동, 은곡과 세천은 세곡동, 지곡과 자양은 자곡동이 되었다. 1963년 3월 1일 법률 제1171호에 의해 일원, 수서, 자곡, 울현, 세곡의 5개리가 서울시에 편입되어 신촌, 오야, 심곡, 시흥, 둔전, 사송, 금토, 상적, 고등의 9개리만 남게 되었다가,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의하여 9개리 모두 성남시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대왕마을은 ‘오야(梧野), 심곡(深谷), 둔전(屯田), 사송(沙松), 금토(金土), 고등(高登)’과 같은 지형적 특징에서 비롯된 마을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로부터 이 일대의 자연환경은 높은 산지와 깊은 계곡이 있어 삼림이 우거졌으며, 여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인근의 하천으로 모여 강물을 이루고, 장구한 시간에 걸쳐 반복된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 형성된 사질의 퇴적층으로 이루어진 비옥한 경작지가 넓게 펼쳐진 모습이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비록 현대에 이르러 각종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그러한 옛 모습이 많이 변형되었을 것임은 자명하지만, 과거 이 지역에 살던 이들이 날마다 마주 대하며 살았던 자연과 그 안에서 삶을 이어나갔던 생활의 흔적은 비록 보잘것없는 한 조각 토기편에 불과한 물건들 속에서도 살아 숨쉬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제 그러한 우리 삶의 역사를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남겨진 유적과 유물, 옛 문헌을 통해 찾아가 보기로 하자.

이야기를 전개하기에 앞서 우선 ‘선사(prehistory)’라고 하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전사는 말 그대로 ‘역사(history) 이전(pre-)’을 뜻한다. 어원적으로 보면 역사는 이야기(story)에서 파생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역사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인 셈이다. 과거인들이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은 입에서 입으로 혹은, 경험의 반복적인 전수를 통해서 후대로 학습되고 전승되는데, 어느 시기엔가 문자가 발명됨으로써 비로소 기록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전달된다.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단계에 이르러 ‘역사시대’가 출발하며, ‘문자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이야기’가 바로 ‘역사’인 것이다. 이렇게 ‘역사’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전사시대’에 대한 정의는 한결 쉬워진다. ‘전사시대’란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 혹은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의 시대’로 정의할 수 있다.

전사시대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사시대 인류의 삶은 오직 그들이 사용한 도구나 남긴 흔적 등을 통해서만 파악되어질 수 있다. 전사시대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등으로 시기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이 시기에 살던 인류는 현대와 같이 고도로 발달된 기술수준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 하나하나에 있어 그들이 처한 자연환경이 가지는 지배력은 지금보다 훨씬 컸던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전사인류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나 그들이 남긴 흔적 못지않게 그들이 적응하고 때론 극복해가며 살았던 자연환경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의 대왕마을은 북으로 서울시 강남구와 접하고 남으로 성남시 판교동과 접하는 지점에 위치하는데, 서쪽에 인릉산(해발 327m), 청계산(해발 615m), 국사봉(해발 539m)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자리 잡고 있으며, 동쪽 저지대에 탄천이 북쪽으로 흘러 한강본류와 합류하는 지형으로 서고동저(西高東低)의 형세를 이루고 있다. 서쪽의 고지대로부터 동쪽 사면을 따라 크고 작은 여러 계곡이 형성되어 있고, 동쪽의 탄천 주변에는 해발 50~100m 내외의 얇은 구릉과 평야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다. 이와 같은 지형은 동쪽의 탄천 및 주변의 퇴적층과 주변의 야트막한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전사시대의 사람들이 생업활동을 전개하기 알맞은

조건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력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쪽의 저지대에서 서쪽의 골짜기로 점점 삶의 터전을 확대해나갔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위에서 그려본 것과 같은 선사인의 삶의 모습은 그들이 남긴 삶의 흔적을 통해 확인되는데, 그 중 하나가 ‘사송동 지석묘군’이다. 이 유적은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산9.산9-1임)의 얇은 능선에 위치하며, 동쪽에는 탄천이 흐르고, 남쪽에는 야트막한 구릉성 산지가 계속 이어진다. 지석묘는 능선을 따라 8개소에 일렬로 늘어선 모습으로 분포하는데, 그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하는 지석묘는 길이 390cm의 커다란 상석과 지석이 완전히 노출된 전형적인 북방식의 형태를 보여준다. 나머지는 이에 비해 크기가 작으며, 지상에 상석만 노출되어 있을 뿐 지석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지석묘의 구체적인 형태 및 계통 등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사송동 부근에서 무문토기편과 어망추 등 선사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도 있고, 1990년대 분당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이곳에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보고서에서는 사송동에 23기의 지석묘가 더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처럼 이 지역에는 지석묘가 다수 분포하며, 이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많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적어도 기원전 300년 이전의 청동기시대에 이 지역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일정한 기술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지석묘는 흔히 ‘고인돌’이라 부르는 것으로 청동기시대의 사람들이 남긴 무덤인데, 지석묘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매장풍습은 물론 사회조직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으며, 선사시대에 한반도에 정착해 살던 사람들의 문화계통을 파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송동 지석묘군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되어야 할 것이며, 추후라도 이 일대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지석묘가 존재하는지, 또한 이와 관련된 주거지 등의 유적이 분포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지석묘를 통해 충분히 짐작되는 청동기시대의 이전에도 이 지역에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현재까지 청

동기시대 이전, 즉 신석기시대나 구석기시대에 이 지역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직접적이고도 물리적인 증거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인근에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진 암사동유적, 미사리유적이 위치하며, 이들이 한결같이 한강의 지류에 입지한다는 점은 하나의 시사점을 준다. 이 지역의 젓줄과도 같은 탄천 또한 한강의 지류 중 하나로서 탄천으로부터 공급되는 물과 주변의 범람원은 선사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을 것이다. 현재, 탄천의 서안에는 군부대의 비행장이 건설되어 있고, 그 여파로 인해 탄천 일대 대지의 모습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천 주변이 가지는 역사적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 일대 선사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고리로서 탄천 주변을 계속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삼국시대 이 지역의 역사를 논함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한성시대 초기백제의 역사이다. 초기백제의 역사는 부여계통에서 남하한 집단이 한강유역에 백제를 건국하고, 이후 5세기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 때, 웅진으로 천도한 시기까지의 약 500년에 걸쳐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장구한 시간을 가진 ‘한성시대’는 이후 채 200년이 안되는 ‘웅진기’, ‘사비기’ 백제에 비해 그 내용이 많이 알려지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소위 ‘잃어버린 500년’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이 시기의 백제는 문헌기록보다는 주변에 남아있는 유적을 통해서 훨씬 분명한 모습을 드러낸다. 일찍부터 백제의 도읍으로 주목받아온 풍납토성(사적 제11호), 몽촌토성(사적 제297호)을 비롯한 이성산성 등의 성곽유적과 석촌동 고분군, 방이동 고분군 등이 그것이다. 학계에서는 백제가 도읍을 했던 도성의 위치가 어디인 가를 놓고 수십 년째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성의 규모와 출토내용의 풍부함을 근거로 풍납토성을 도성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한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고, 이를 충분히 연구·검토해 나가다보면 차차 정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한성시대 초기백제에 관한 연구는 도성의 위치 등에 관한 문제에 너무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그 주변의 지역에서 함께 전개되고 있던 문화

의 성격 혹은, 문화적 맥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은
 가 생각된다. 한성시대 초기백제의 도성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외곽에 위
 치하는 이 지역의 역사 및 문화상을 알아보아야 할 필요성은 아마도 이
 런 문제의식으로부터 그 출발점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 시대의 문헌기록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삼국사기』에 나오
 는 건국설화를 보면 백제가 한강유역에 도읍을 정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
 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오자 태자가 되었다.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두려워서, 마침내 오간·마려 등 10명의 신하를 거
 느리고 남하하니 따라가는 자가 많았다.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負兒嶽)
 에 올라 살 곳을 찾아보니, 비류는 해변에 살기를 원하였다. 10명의 신하가
 말하기를, “생각컨대 이 하남의 땅은 북은 한수(漢水)를 띠고, 동은 고악(高
 岳)을 의지하였으며, 남은 옥택(沃澤)을 바라보고, 서로는 대해(大海)를 격하
 였으니, 그 천형의 지리가 얻기 어려운 지세라. 여기에 도읍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비류는 듣지 않고 그의 백성을 이끌고 미추홀로 가
 서 살았다. 온조는 하남의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10신으로 보익을 삼아 국
 호를 십제(十濟라)고 하니, 이 때가 전한 성제의 홍가 3년(B.C. 18)이다. 비류
 는 미추홀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안거할 수 없으므로 돌아와 위례를 보니
 도읍이 안정되고 백성이 편한지라 참회하여 죽고 백성들이 오니, 후에 백제
 (百濟)로 고쳤다.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시조 온조왕)

위 기사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10명의 신하가 말한 하남의 지형지세
 이다. 북쪽의 한수가 한강을 말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고, 동쪽의 고
 악은 광주군 남한산성 일대의 험준한 산악일 것이다. 문제는 남쪽의 옥택
 이 어디쯤일까에 대한 문제인데, 옥택을 말 그대로 풀면 비옥한 습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기백제의 유적이 밀집된 현재의 서울시
 송파구를 도성이 위치했던 하남으로 가정하면 그 남쪽의 옥택은 주변의

양재천, 탄천 등의 한강지류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한강의 지류에 이미 선사시대에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였던 흔적이 대규모 선사주거지의 존재를 통해 확인되는 것처럼, 탄천 및 양재천 일대 저습지 또한 당시 사람들이 생업을 펼치며,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진 비옥한 평야지대, 즉 옥택인 것이다. 어쩌면 한강 이남의 남한산과 그 주변의 얇은 구릉 사이를 흐르는 탄천 일대의 평야지대에 살던 주민들과 그들이 생산해 내었던 풍부한 물산이 초기백제를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삼국시대에 한강유역이 다시 주목받는 계기는 고구려의 남하이다. 고구려는 장수왕 63년(475)에 병력 30,000명을 동원하여 백제의 도성인 한성을 공격하였고, 도망치던 개로왕은 아차산성에서 붙잡혀 피살되었다. 이 사건으로 약 500년간 한강을 지배하던 백제는 결국, 한강에 대한 패권을 고구려에 넘겨주고 금강일대의 웅진으로 천도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을 통해 한강유역을 장악한 고구려는 새로운 점령지를 자신의 관할 하에 두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고구려는 한강유역의 농경지대를 장악하고 이 일대의 주민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남한산 일대의 장악에 큰 비중을 두었을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한강유역의 북한산군(北漢山郡)이며, 이를 별도(別都)의 의미가 있는 남평양(南平壤)이라 명명하며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남평양시대(?)’는 백제 성왕이 나제동맹을 이루어 한강유역을 탈환할 때까지 70여 년간 지속된다.

삼국시대에 한강유역을 최종적으로 차지한 것은 신라였다. 법흥왕~진흥왕대를 거치며, 크게 성장한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으로 한강상류 10개 군을 점령하였다. 이어 백제가 차지한 한강하류 6개 군을 공격하여 이마저 빼앗으니 이로써 나제동맹은 결렬되고 말았다(553).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은 신라가 남한산 및 한강유역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삼국을 통일하는 커다란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신라는 익히 한강유역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다스리기 위해 군사적 성격의 행정구역인 신주(新州)를 설치하는 등 이 지역의 경영에 적극적이었다. 신주는 지금의 남한산성을 가리키는데, 주장성(晝長城) 또는 일

장성(日長城)이라 불리우며, 이성산성과 더불어 한강유역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삼국시대에 한강유역이 가지는 중요성은 이곳의 패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삼국의 판도가 달라질 정도로 커다란 정치군사적 의미가 있었다. 한강유역은 한성시기의 초기백제가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중요한 기반이었으며, 이곳을 상실한 백제는 중요한 세력기반을 잃음으로써 남쪽의 금강지역으로 천도하며 국세가 크게 기울게 된다. 백제는 한강유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였으므로 고구려에 대항하여 신라와 나제동맹을 결성함으로써 이 지역의 탈환을 도모하였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신라는 건국초기에 상대적으로 약소국이었지만 나제동맹 및 이의 결렬을 통해 결국 한강유역을 확보하였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을 통해 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둠으로써 국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나아가 삼국을 통일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결국, 삼국시대에 탄천 일대의 지역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한강유역이 가지는 정치군사적 맥락을 빠뜨리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며, 이와 더불어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배경으로 이 지역을 장악한 정치세력이 성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회경제적 기반이 되었을 것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백제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한 이후 탄천을 포함하는 한강유역은 도성과 이를 인적, 물적으로 뒷받침하는 배후지로서 기능하였다. 고구려의 남하정책 이후, 백제의 한강유역 수복과 신라의 진출 등을 통해 한강유역은 정치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성격이 부각되었지만 신라에 의해 최종적으로 삼국이 통일된 이후에는 9주 5소경 중 한산주(漢山州)에 편입된다. 9주 5소경의 설치에 통일된 신라의 확대된 영토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지방거점을 두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한강유역이 가지는 성격 또한, 지방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행정구역의 한 단위로 변화하게 된다. 신라 말기에 이르러 왕실의 힘이 약해지자 전국 곳곳에 나뉠대로의 경제적 기반과 군사력을 보유한 지방호족들이 활거하게 되는데, 이들은 대개 9주 및 5소경을 중심으로 자신의 세력기반을 넓혀

나가게 된다. 그 대표적인 세력 중의 하나가 광주(廣州)에 근거를 둔 왕규(王規)이다. 광주는 신라말기까지 한주(漢州)로 불려지던 곳으로 광주로 개칭된 것은 태조 23년(940)의 일이다. 태조는 수많은 지방호족들을 견제 혹은 수용하기 위해 통혼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왕규는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왕실과 적극적으로 인척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했다. 왕규가 고려 왕실 깊숙한 곳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타의 유력 호족들과 마찬가지로 왕실에서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사병집단을 소유한 무시할 수 없는 정치세력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왕규의 정치적 힘은 무력에서 비롯되는데, 이를 유지해주는 기반이 한강 일대의 비옥한 평야에서 비롯되는 경제력의 소산임은 자명한 것이다.

왕규 등의 막강한 호족의 세력은 광종대에 접어들면서 많이 약화되고, 고려는 각종 조치를 통해 점차 왕실의 안정 및 중앙집권화의 길로 나아가는데, 이러한 흐름과 함께 진행된 것이 바로 지방제도의 정비이다. 고려의 지방관제는 성종 2년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설치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때 설치된 12목은 양주, 광주, 충주, 청주, 공주, 해주, 진주, 상주, 전주, 나주, 승주, 황주이다. 광주에 목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중앙에서 직접 지방관이 파견되어 현지의 향리들을 지휘 감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직 중앙의 힘이 지방 곳곳에 미치지 못하였던 고려시대에 광주에 목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지방관이 직접 파견되어야 할 만큼 광주지역의 중요성이 높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지방관제의 정비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통일신라말기부터 지방호족의 영향력 하에 놓여있던 광주를 비롯한 주요 거점이 성종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중앙의 통제 속에 편입되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목은 천녕군(현 여주군), 이천군(현 이천시), 죽주(현 안성시), 과주(현 과천시)의 4개 속군과, 지평(현 양평군 지제면), 용구(현 용인시), 양근현(현 양평시)의 3개 속현을 관할하는 광역의 행정구역이었다. 이러한 주읍과 속현은 역로를 통해서로 연결되었는데, 고려시대에는 도읍인 개경을 중심으로 전국이 22개의 도로망으로 연결되었다. 도로망을 통해 살펴볼 때 광주목의 입지는 개

경과 남부지역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개경과 경기남부의 연결로는 청교도(靑郊道)이며, 이곳으로부터 동쪽으로 춘주도(春州道). 명주도(溟州道)를 통해 강원도 방면으로, 남쪽으로 광주도(廣州道). 평구도(平丘道)를 통해 전라도, 경상도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전국 각로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던 광주목은 관할구역 내에 많은 역을 두었는데, 광주의 경안역(京安驛). 장가역(張嘉驛). 안업역(安業驛). 남산역, 과천의 양재역, 용인의 금령역(金嶺驛), 죽산의 좌찬역(佐贊驛). 분행역(分行驛). 이천의 오행역(五行驛). 안리역(安利驛) 등이 그것이다. 이들 역을 통과하는 주요한 역로는 한양-양재-용인-죽산-음성-괴산-연풍의 역로와 한양-이천-음죽-충주로 이어지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지명으로 남아 전해지는 낙생역(樂生驛)이다. 지방제의 정비와 함께 이와 같은 역참로의 발달은 고려사회를 행정. 군사. 상업적인 측면에서 이어주는 동맥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특히 낙생역을 비롯한 광주 일대의 역은 남부의 풍부한 물산을 수도 개경으로 실어 나르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성종 14년(995)에는 12목 대신 12주 절도사제(節度使制)와 병행하여 10도제(道制)가 실시되었다. 10도제에 따라 전국은 관내도, 중원도, 하남도, 강남도, 영남도, 산남도, 영동도, 해양도, 삭방도, 패서도 등으로 나뉘었는데, 광주목은 이때 관내도에 속하였다. 이 제도는 군사적 성격이 강하며, 당제(唐制)를 모방한 것인데, 절도사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한수 아래로 여기던 거란의 1차 침입(993)을 입음으로써 얻은 교훈을 통해 전국을 보다 강력한 군사동원체제로 만들기 위한 의도가 강한 것이었다. 현종 3년(1012)에는 절도사가 폐지되고 안무사(按撫使)가 설치되는데, 이는 군정통치에서 민정통치로 복귀됨을 의미한다. 현종 9년(1018)에는 안무사가 폐지되고 다시 8목이 생기는데 이때, 다시 광주목으로 복귀되면서 고려시대 지방제도는 완비되며, 이는 고려시대 지방제도의 골격을 이룬다.

고려시대 후기에는 무인정권기의 잦은 정변과 몽고의 30여년에 걸친 침략으로 많은 시련이 있었다. 몽고침략기에 고려 왕실은 강화도로 피신

하여 무사했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 특히, 광주 지역민들의 피해는 “몽고군이 광주를 지나면서 주민을 잔멸하지 않음이 없었다.”는 기록에서 보이는 것처럼 매우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몽고의 침략을 받으며 백성들이 삶이 피폐해진 것과 함께 몽고의 간섭기를 거치면서 현종대에 완비된 5도 양계의 지방제도도 서서히 변질되어 간다. 현종대에 8목 중의 하나로 확정되었던 광주목은 이후 충선왕 2년(1310)에 전국 주군의 읍호를 고칠 때 지주사(知州事)로 강등되면서 8목에서 제외되는 등 그 지위가 격하되었다. 그러다가 고려말기인 공민왕 5년(1356) 다시 목으로 격상되며 본래의 지위를 되찾게 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삼국의 각축장으로서 군사적 중요도가 높았던 한강유역은 고려시대 들어 지방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8목 중 하나인 광주목이 되면서 행정적으로 계속 중요시되었다. 그것은 광주목이 개령의 남쪽의 길목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이곳을 삼남지방에 중앙의 정치력을 실현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 지역의 기름진 평야지대는 전시과의 제정을 통해 중앙에 진출한 귀족들에게 전지와 시지로 지급됨으로써 중앙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고려시대에 이 지역이 가지는 의미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 들어 탄천 일대를 포함하는 광주지역은 지방제도의 개편과 함께 몇 차례 변화를 맞는다. 태조 4년(1394) 새로 개창한 조선왕조의 도읍을 한양으로 정하고 천도를 단행하면서 경기도를 좌우도로 나누었는데, 이때 광주는 경기좌도에 편입되었다. 태종 3년(1403)에는 지방 군현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는데, 이때 충주.청주.원주.나주.상주.진주.성주 등과 함께 이 지역은 광주목에 편입되었다. 광주목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진관체제의 성립이후 강화되어 군사편제상 광주진을 거진(巨鎭)으로 삼고, 광주목사 휘하에 여주목.이천도호부.양근군.음죽.지평.양지.죽산.과천현을 두어 광주목사는 병마첨절제사와 병마절제사를 맡고, 기타 수령은 병마동첨절사.병마절제도를 겸직하도록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는 광주목이 지정학적으로 한강 이남의 한양 남부를 감싸

는 위치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한강 이남의 광주지역에서는 조선 초기에 군사훈련이 시행되었던 기록이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군사적 기능 이외에도 이곳은 교통로상의 길목이었기 때문에 왕릉 혹은 온천 등의 행차시 낙생역을 비롯한 부근의 역이 자주 이용되었고, 사신들의 숙박처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광주목은 이후 연산군 때 일시적으로 혁파되었지만 중종 때 곧 복구되어 명종 14년(1559)에 목사가 다시 파견되었으며, 선조 10년(1577)에는 광주부로 승격되어 부윤이 임명되었다.

조선시대 이 지역의 역사를 살펴봄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대상이 바로 천림산 봉수이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천림산 봉수는 서울 남산의 목멱산 제2봉수에 연결되는 제2로 봉수노선에 위치하는 경기도 방 마지막 봉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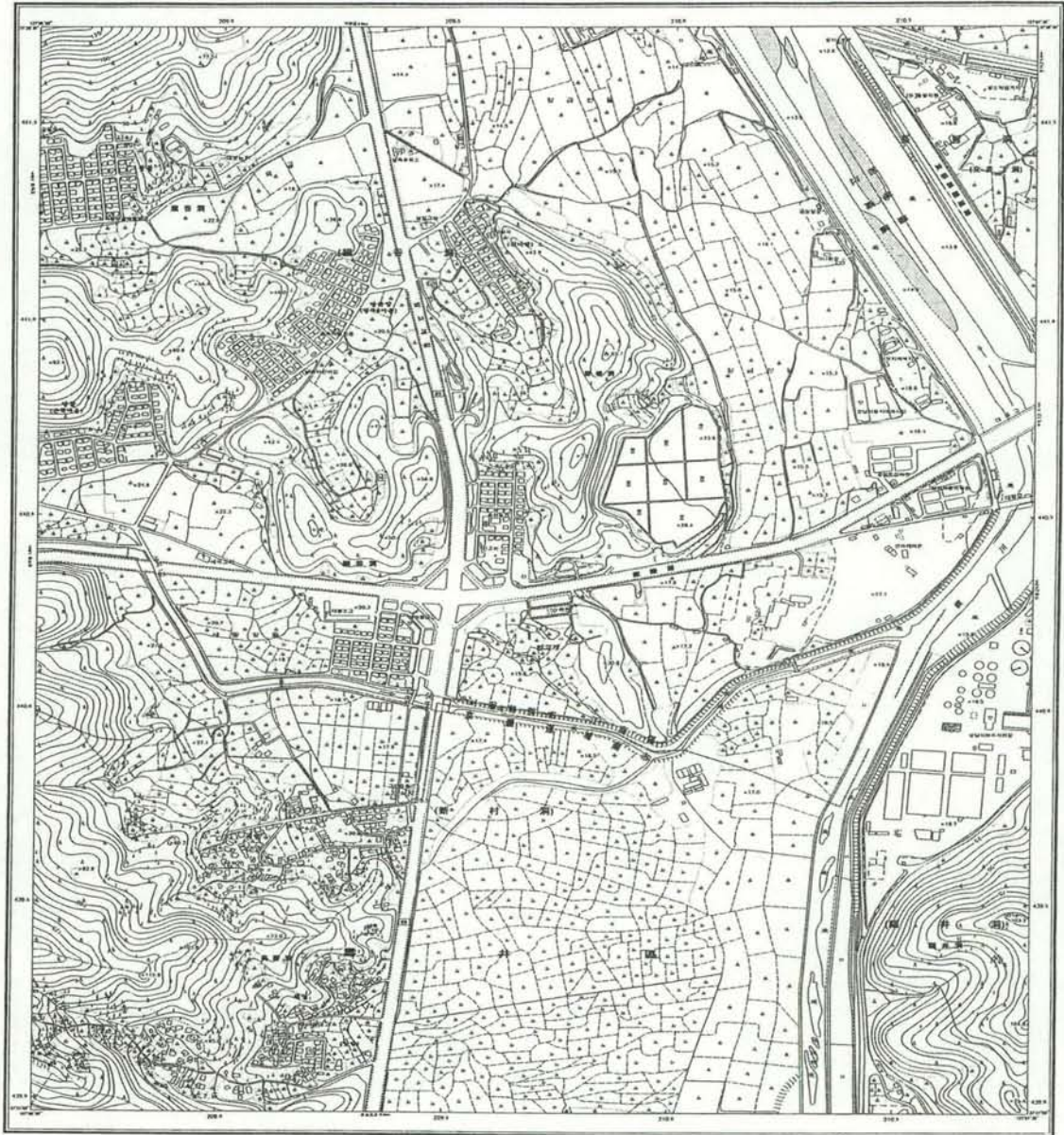
이상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걸친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오야동, 십곡동, 시흥동, 둔전동, 사송동, 금토동, 상적동, 고등동 일대 대왕마을의 역사를 유물과 유적,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지역은 낮은 구릉과 하천이 발달한 지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요인은 선사시대 이래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터전이요, 이곳을 지배하였던 주요 정치세력의 경제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청동기시대의 지석묘군, 『삼국사기』 「백제본기」 시조 온조왕조 등의 기록은 이 지역이 가지는 이와 같은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또한 삼국시대에는 각국이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함으로써 이 지역의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성격이 부각되기도 했다. 이 지역에 대한 명칭은 고려시대 지방제도의 정비과정에서 광주목으로 확정되는데, 고려시대 수도인 개경 남쪽에 위치하고, 고려초기부터 지방관이 직접 파견되는 곳으로서 중요시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도읍이 한양으로 정해지면서 이 지역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삼남지방에서 한양으로 들어오는 관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역참과 봉수가 발달하였다. 이렇게 고려.조선을 거치며 만들어진 체계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정치.행정.군사.경제.교통.통신.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서 지속되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2. 대왕마을 문화유적 위치도

水 原 (015)

1:5,000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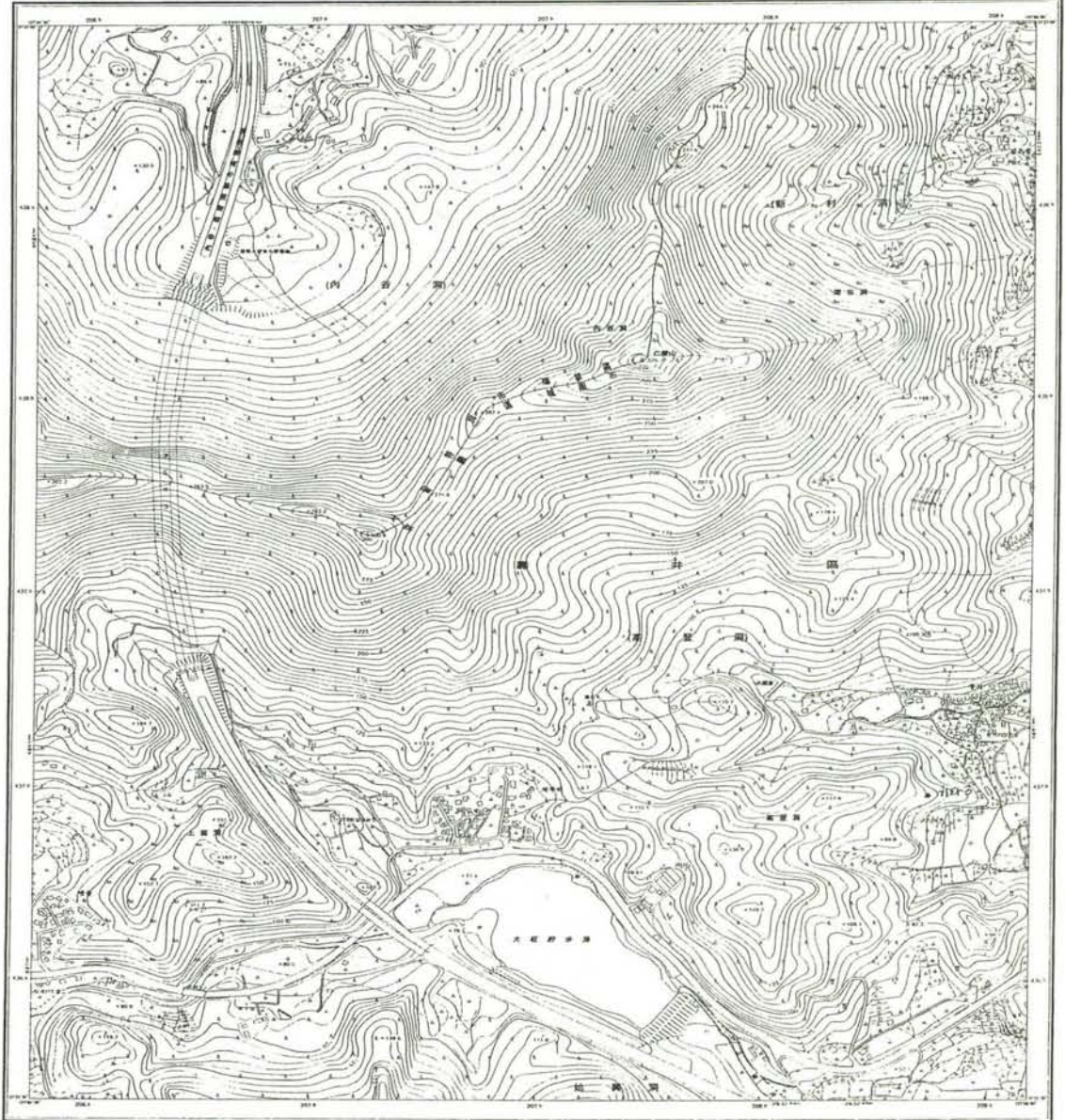
도형번호 NJ52-9-19-015



水 原 (024)

1:5,000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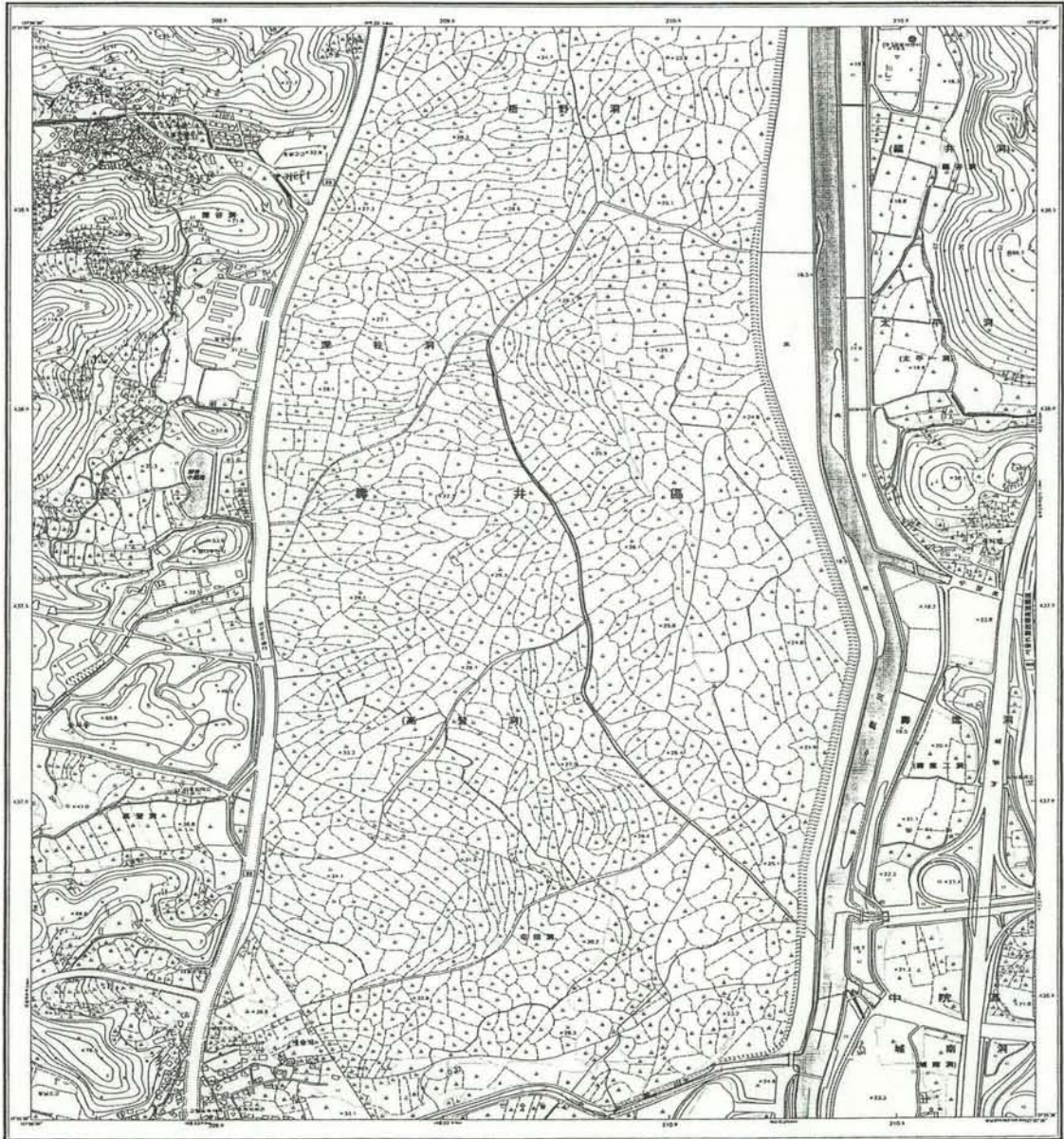
도엽번호 NJ52-B-19-024



水 原 (025)

1:5,000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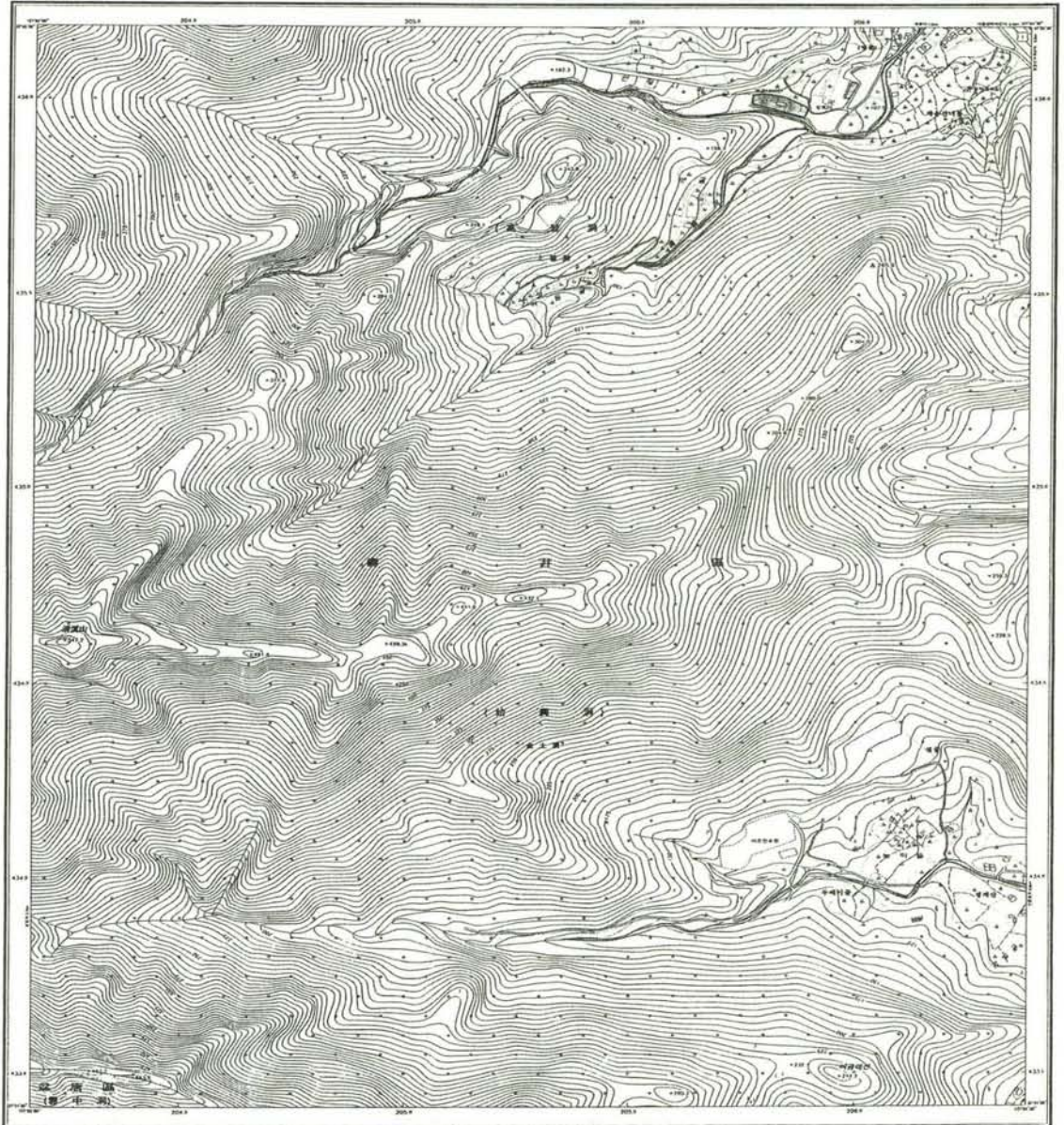
도엽번호 NJ62-B-16-025



水 原 (033)

1:5,000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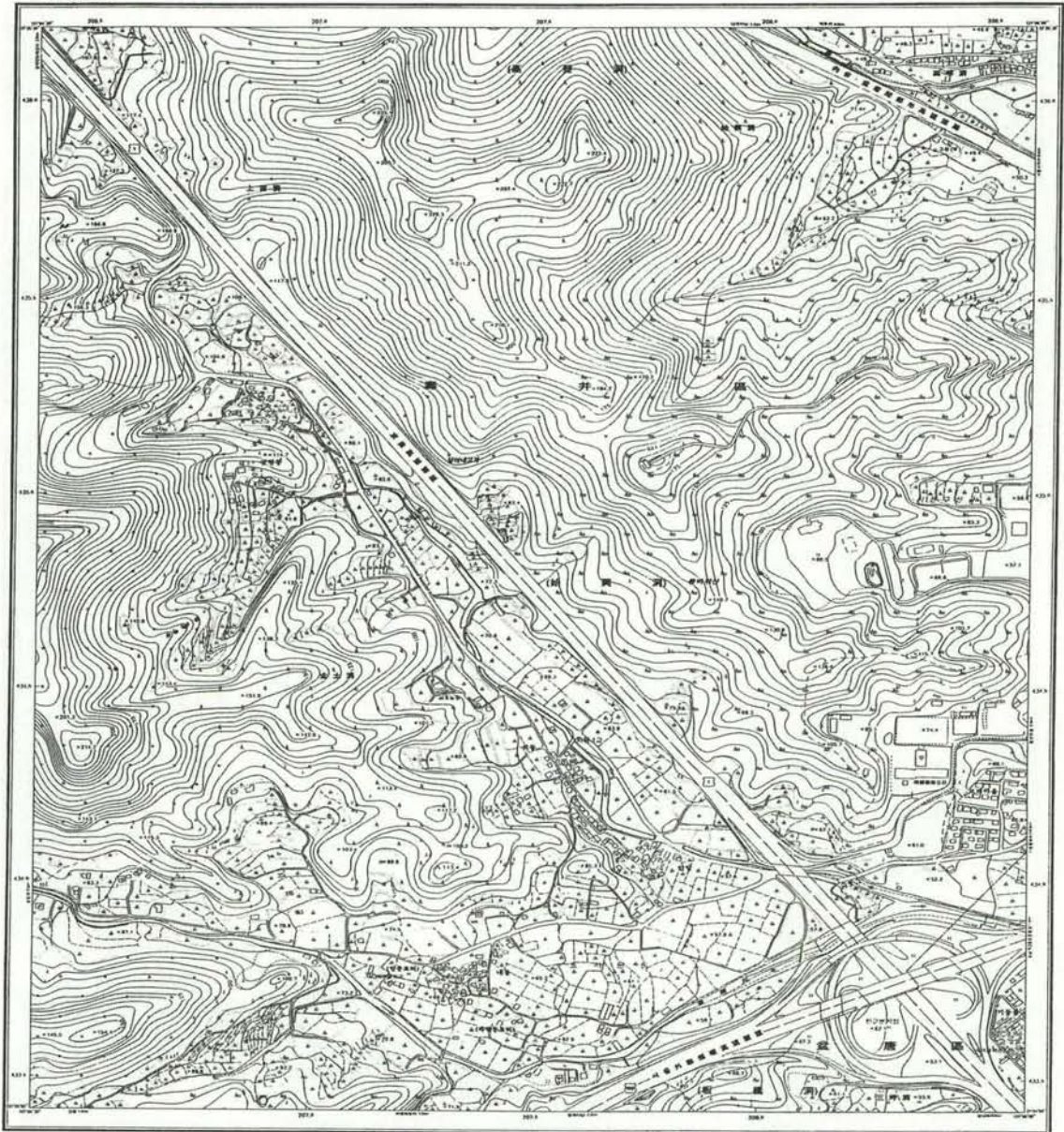
도엽번호 NJ62-0-10-033



水 原 (034)

1:8,000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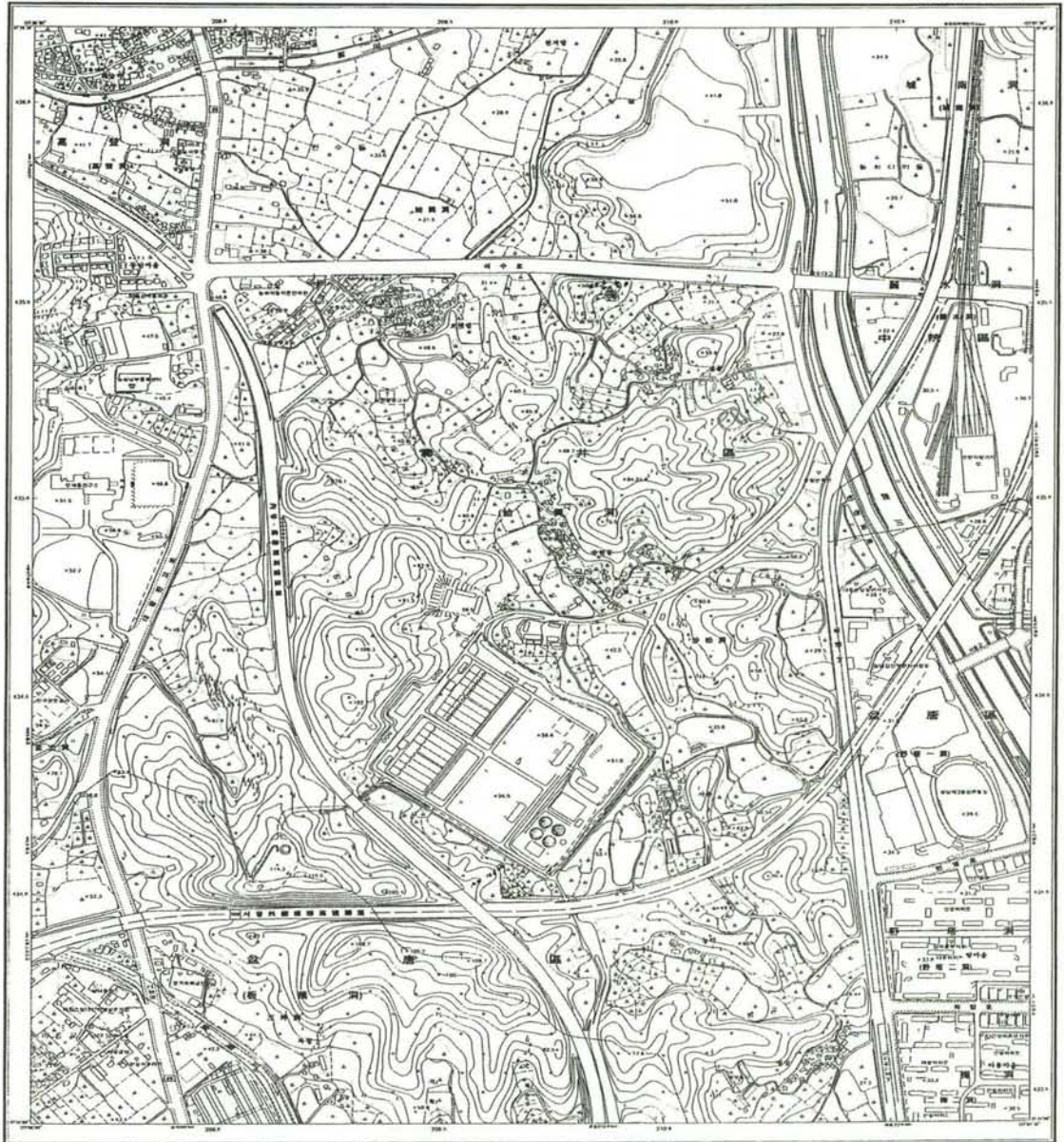
도엽번호 NJ62-9-10-034



水 原 (035)

1: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52-8-19-035



3. 대왕마을의 문화유적 개관

대왕마을은 과거에 광주군 대왕면이던 곳을 가리키는 말로 현재는 성남시에 편입된 수정구 일대의 신촌, 오야, 심곡, 시흥, 둔전, 사송, 금토, 상적, 고등의 9개 동리를 뜻한다. 이 지역은 서쪽에는 청계산을 중심으로 국사봉·인릉산 등의 높은 산지가 있으며, 이들 산지로부터 동쪽으로 여러 갈래의 능선이 뻗어있다. 능선 사이 사이에는 ‘深谷’이란 동리명에서 짐작되듯이 깊은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흘러내리는 물 줄기는 동쪽의 저지대로 흘러 탄천에 합류한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서쪽의 산간계곡과 동쪽 탄천변의 구릉성 산지 및 저지대는 사람들이 삶을 일구어 나가는 터전이 되었다. 문화유적이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남겨놓은 자취인 바, 사람들이 삶을 영위했던 곳에는 반드시 문화유적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과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기 위한 좋은 방법은 이러한 문화유적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일인 것이다.

이 지역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때는 사송동 지석묘군의 존재가 말해주듯 적어도 기원전 300년 이전의 청동기시대부터임은 확실해 보인다. 또한 탄천 일대는 지금에 비해 기술력이 부족했던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여 주기 때문에 어쩌면 청동기시대보다도 더 오래전에 사람들이 살았을 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이 지역에서 초기에 생활하던 사람들은 주로 탄천변의 저지대에서 생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인구가 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활범위는 점차 서쪽의 산간계곡으로 넓혀졌다고 생각된다. 심곡동이나 고등동일대의 유물 산포지는 이를 증명해 준다.

대왕마을 일대에 분포하는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는 최근에 성남시 광역지표조사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서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는 2001년에 발간된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어 이번 조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왕에 조사된 유적들을 확인함과 동시에 지난 조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였

을 수도 있는 신규 유적지를 찾아내는 데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고등동·심곡동·사송동 일대에서 유물 산포지 몇 곳을 추가하였다. 아쉬운 점은 이 지역 선사문화의 보고라 할 수 있는 탄천변에 대한 조사가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현장실사 결과, 성남 비행장 동쪽 탄천변은 하천개량사업을 통해 외부로부터 토사 반입이 많이 이루어져서 원래의 지면을 찾아내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지만 개량된 하천변이라 할 지라도 새로 덮은 토사 수 미터 아래에서도 유적이 발견되는 예가 심심찮게 들려오는 요즘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유적이 이미 없어졌을 것이라고 미리부터 낙담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곳곳에 남아있는 작은 흔적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존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책에서는 이 지역의 문화유적을 크게 고고유적(8개소), 유교유적(21개소), 기타유적(3개소)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유적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1] 성남 대왕마을지역 문화유적 현황(고고분야)

번 호	유 적 명	위 치	종 류	시 대
고고1	심곡동 유물산포지1	수정구 심곡동 우정아파트 서쪽 능선	유물산포지	
고고2	심곡동 유물산포지2	수정구 심곡동 우정아파트 서쪽 골짜기	유물산포지	
고고3	사송동 지석묘군	수정구 사송동 산9외	선사분묘	청동기시대
고고4	사송동(앞골) 유물산포지1	수정구 사송동 658	유물산포지	
고고5	사송동(앞골) 유물산포지2	수정구 사송동 658	유물산포지	
고고6	사송동(앞골) 유물산포지3	수정구 사송동 658	유물산포지	
고고7	사송동(사촌) 유물산포지4	수정구 사송동 낙생로 서쪽 대지	유물산포지	
고고8	사송동(사촌) 유물산포지5	수정구 사송동 수자원공사 남동쪽 대지	유물산포지	

[표2] 성남 대왕마을지역 문화유적 현황(유교분야)

번 호	유 적 명	위 치	종 류	시 대
유교1	최기남 묘	수정구 신촌동 산3-1	묘	조선
유교2	안명세 묘	수정구 심곡동 산67	묘	조선
유교3	이경현 묘	수정구 상적동 산24-1	묘	조선
유교4	이경민 묘	수정구 고등동 산37-1	묘	조선
유교5	이통 묘	수정구 고등동 산37-1	묘	조선
유교6	이경안 묘	수정구 고등동 산37-1	묘	조선
유교7	이우 묘	수정구 고등동 산28-2	묘	조선
유교8	이의번 묘	수정구 고등동 산6-7	묘	조선
유교9	이함 묘	수정구 고등동 산13	묘	조선
유교10	이심 묘	수정구 고등동 산5-1	묘	조선
유교11	이혜 묘	수정구 고등동 산13	묘	조선
유교12	천림산 봉수	수정구 금토동 산32	봉수	조선
유교13	권징 묘	수정구 금토동 산63	묘	조선
유교14	권우 묘	수정구 금토동 산57-4	묘	조선
유교15	권광 묘	수정구 금토동 산57-1	묘	조선
유교16	남공철 묘	수정구 금토동 산64-2	묘	조선
유교17	남원윤씨 묘역	수정구 금토동 산44	묘	조선
유교18	원경하 묘	수정구 사송동 산16-1	묘	조선
유교19	원의손 묘	수정구 사송동 산15-2	묘	조선
유교20	이진수 묘	수정구 사송동 산66-5	묘	조선
유교21	양성이씨 묘역	수정구 사송동 산75-2	묘	조선

[표3] 성남 대왕마을지역 문화유적 현황(기타)

번호	유적명	위치	종류	시대
기타1	성남 심곡동 거북바위	수정구 심곡동 320	기타	미상
기타2	성남 심곡동 우두물	수정구 심곡동 361	기타	조선
기타3	성남 고등동 산신각	수정구 고등동 산3	기타 목조물	현대

4. 대왕마을의 문화유적(고고분야)

1) 심곡동 유물산포지 1(深谷洞 遺物散布址 1)

심곡동 유물 산포지 1은 수정구 심곡동 우정아파트 서쪽에 있는 능선 남사면 아래 작은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는 소로변에 위치한다. 유적의 입지는 서쪽의 인릉산(해발 326.7m)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 끝부분에 해발 116.6m의 작은 봉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봉우리의 남쪽 경사면에 형성된 다소 협소한 대지이다. 소로변에서 분청사기 등의 유물이 발견되어 주변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석렬 1개소가 확인되었고, 기와, 분청·백자·토기편 등의 유물을 채집하였다. 특히 채집유물 중 기와편이 많이 보이는데, 앞서 언급한 석렬 1개소와 연관지어 이 일대에 건물지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채집된 유물을 살펴보면, 먼저 기와류는 선문·집선문·무문의 암·수키와가 있다. 토기류는 회색 연질의 壺편으로 보이며, 자기류는 분청접시·대접·호 등 분청사기의 비중이 높고, 오목굽 형식의 백자가 눈에 띈다. 이상 채집된 유물의 연대는 조선 전기 후반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까지로 판단된다.

조사지역에 수풀이 많이 우거져서 더 이상의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였지만 소로변에서 확인된 석렬유구 주변에 대량의 기와편이 확인되었으므로 차후 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진행한다면 유적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심곡동 유물산포지 1



심곡동 유물산포지 1 조사모습

2) 심곡동 유물산포지 2(深谷洞 遺物散布址 2)

심곡동 유물산포지 2는 심곡동 유물산포지 1에서 동쪽으로 약간 내려온 지점의 대지이다. 현재는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분청사기, 백자, 토기편 등 다수의 유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적의 입지는 심곡동 우정아파트 뒤편의 동쪽으로 펼쳐진 작은 골짜기이다.

채집된 유물은 토기류의 경우 회색 연질의 토기 壺 구연부편, 흑회색 경질의 토기 파수부편 등이 보이며, 자기류는 분청접시, 대접편 등 분청사기와 삼각굽 형식의 백자 접시, 잔 등의 백자류 비율이 비슷하다. 이상 채집된 유물의 연대는 조선 전기에서 중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곡동 유물산포지 2



심곡동 유물산포지 2 조사모습

3) 사송동 지석묘군(沙松洞 支石墓群)

사송동 지석묘군은 수정구 사송동의 여수로 남쪽 도로변에 있는 낮은 구릉지대에 위치한다. 유적의 입지는 탄천 주변의 저지대 중간에 간혹 솟아있는 낮은 구릉지인데, 남쪽의 해발 약 100m 안팎의 저산지를 배경으로 동쪽의 탄천, 북쪽의 상적천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이다. 지석묘군은 남쪽의 저산지에서 북쪽으로 낮게 펼쳐지는 50m 내외의 구릉 위에 밀집하여 존재한다. 북쪽으로 난 이 구릉지대는 여수로가 개설되면서 절개되었는데, 원래의 지형은 여수로 북쪽으로 더 연결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확인되는 지석묘군 이외에도 북쪽에 더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찍이 사송동 부근에서는 무문토기편과 어망추 등의 선사시대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보고가 있어서 그 유물들과 이 지석묘군과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으나 현재, 그 유물들이 발견된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못하다.

지석묘군은 남북방향을 이루다가 동서 방향으로 휘어져 ‘Γ’ 자 형태를 이루는 능선 정상부를 따라 일렬로 8개소에 형성되어 있다. 그 중에

서 가장 크고, 상석·지석 등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춘 제일 서쪽에 있는 지석묘로 이를 1호 지석묘라 하였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고, 하부가 매몰되어 지석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형태상으로 지석묘의 상석으로 보이는 2개소의 것을 각각 2호·3호 지석묘라 이름 붙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1호 지석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동쪽으로 차례대로 4호·5호·6호·7호·8호라 명명하였다.

차후 이 일대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석묘의 분포 현황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성남 일원에서 그 조사 예가 없는 정연한 하부구조물을 갖춘 1호 지석묘와 같은 경우는 도지정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호·2호·3호 지석묘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호 지석묘

하부에 지석이 있고, 상부에 장타원형의 개석이 올려진 지석묘이다. 하부구조는 원래 석관형 구조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동쪽과 남쪽의 구조물은 보이지 않는다. 잔존하는 하부의 판석은 모두 상부가 밖으로 벌어져 있으며, 아랫부분은 흙에 파묻혀 있다. 동편에서 보면 개석 하부의 빈 공간에 다수의 천석이 깔려 있는 것이 관찰되는데, 이것이 후대의 교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지석묘의 구조물인 지는 불분명하다.

규모는 길이 390cm, 폭 300cm, 두께 40cm로 비교적 큰 편이며, 장축방향은 정남북방향으로 능선방향 및 탄천이 흐르는 방향과 일치한다. 개석 하부의 동쪽 판석은 길이 173cm, 노출부 높이 55cm이며, 북쪽 판석은 노출부 길이 90cm, 노출부 높이 58cm이다. 개석과 하부의 구조물은 모두 재질이 화강편마암으로 동일하며 개석 상면에서 별다른 흔적은 파악되지 않는다.



사송동 지석묘군 1호 지석묘



사송동 지석묘군 1호 지석묘 조사모습



사송동 지석묘군 1호 지석묘 조사모습



사송동 지석묘군 2호 지석묘

(2) 2호 지석묘

1호 지석묘에서 북동쪽으로 약 30m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평면 장타원형의 개석이 능선에서 남쪽으로 약간 내려온 경사면에 일부가 토사에 묻혀 있다. 하부의 시설은 현재 관찰되지 않는다.

규모는 길이 195cm, 폭 170cm, 두께 50cm이며 장축방향은 1호 지석묘와 마찬가지로 정남북방향이지만 능선이 약간 휘어지고 있으므로 능선방향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재질은 화강편마암이다.

(3) 3호 지석묘

2호 지석묘에서 북동쪽으로 약 10여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평면 형태는 말각장방형을 이루고 있으며, 거의 개석 상면만 드러나 있는 상태이다. 개석에서 동편으로 약 3m가량 떨어진 지점에 판석형의 석제가 비스듬하게 박혀 있으나 이 지석묘와의 연관성은 불분명하다.

규모는 길이 180cm, 폭 150cm, 두께 약30cm이며, 장축방향은 동서 방향을 이루고 있어 휘어진 능선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재질은 역시 화강편마암이다.



사송동 지석묘군 3호 지석묘



사송동 지석묘군 4호 지석묘



사송동 지석묘군 5호 지석묘



사송동 지석묘군 6호 지석묘



사송동 지석묘군 7호 지석묘



사송동 지석묘군 8호 지석묘

4) 사송동(앞골) 유물산포지 1(沙松洞 遺物散布址 1)

사송동 유물산포지 1은 사송동 지석묘군이 위치하는 구릉지 남쪽 앞골의 대지로서 현재,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곳은 사송동 지석묘군과 인접한 관계로 당초 지석묘와 관련된 선사시대 유물의 채집이 기대되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지석묘와 직접 관련되는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채집된 유물은 토기류와 자기류 등인데, 분청접시류와 삼각굽 형식의 백자대접.호 등의 유물 등이 보인다. 토기류는 회색 계통의 연질 토기 저부편.대상과수부편 등이 보이며, 동체부에 파선문이 시문된 토기편도 보인다. 이상 채집된 유물연대는 대체로 조선 전기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토기편 중 동체부에 파선문이 시문된 1점은 크기가 너무 작아서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통일신라시대 토기 중에도 이런 무늬가 시문된 예가 있으므로 통일신라시대까지도 소급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또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서 2001년도에 발간한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보고서에서도 이 일대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인화문토기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사송동(앞골) 유물산포지 1



사송동(앞골) 유물산포지 1 조사모습

5) 사송동(앞골) 유물산포지 2(沙松洞 遺物散布址 2)

사송동 유물산포지 2는 사송동 지석묘군이 있는 구릉의 남동사면에 위치한다. 지석묘군과 접하는 지점으로 이와 관련된 유물의 확인이 기대되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채집된 유물은 기와류·토기류·자기류 등으로 다양하다. 먼저 기와류는 집선문 수키와 1점이 있고, 토기류는 흑회색 계통의 구연부편 다수와 평저 형식의 토기 저부편이 있다. 자기류는 분청접시 등 분청사기와 다기로 쓰이는 백자 주자편·흑유편 등이 확인되었다. 채집된 유물의 연대는 조선시대로 판단된다.



사송동(앞골) 유물산포지 2



사송동(앞골) 유물산포지 2 조사모습

6) 사송동(앞골) 유물산포지 3(沙松洞 遺物散布址 3)



사송동(앞골) 유물산포지 3

사송동 유물산포지 3은 사송동 유물산포지 1 동쪽의 여수로 남쪽 도로변의 대지로 현재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채집된 유물은 분청 및 백자 등 자기류와 토기류인데, 부근의 다른 산포지에 비해 유물의 빈도가 낮은 편이다. 채집된 유물의 연대는 조선시대로 판단된다.



채집유물사송동(앞골)



유물산포지 3 조사모습

7) 사송동(사촌) 유물산포지 4(沙松洞 遺物散布址 4)

사송동 유물산포지 4는 수정구 사송동 사촌의 낙생로 서쪽 대지에 위치한다. 이 산포지의 남쪽으로는 서울외곽순환 고속국도가 인접하여 지나가며, 서쪽에는 수자원공사 성남관리단이 있다. 남쪽의 해발 70m 내외의 낮은 산지를 배경으로 북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해발 50m 안팎의 얇은 구릉지는 낙생로 동쪽의 분당구 쪽으로도 계속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낙생로 동쪽은 성남제2종합운동장과 야탑동 일대에 아파

트단지가 건설되면서 원래의 지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채집된 유물은 죽절굽의 백자대접편 등 백자류와 평저 형식의 토기저부편 등 토기류가 있으며, 유물의 빈도가 낮은 편이다. 채집된 유물의 연대는 조선시대로 판단된다.



사송동(사촌) 유물산포지 4



사송동(사촌) 유물산포지 4

8) 사송동(사촌) 유물산포지 5(沙松洞 遺物散布址 5)

사송동 유물산포지 5는 수정구 사송동 사촌에 있는 수자원공사 성남관리단 남동쪽에 인접한 대지에 위치한다. 이 산포지의 남쪽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가 지나간다. 남쪽과 서쪽의 해발 100m 내외의 산지와 동쪽의 해발 70m 안팎의 구릉지에 싸인 해발 약 50m 정도의 대지이다.

채집유물은 기와류,분청사기류,토기류,옹기류이다. 기와는 얇게 시문된 사선문의 수키와이고, 분청사기류는 선각문의 분청사기병편,인화문대접편 등이 보인다. 토기류는 파선문이 시문된 토기 동체부편,돌대가 있는 동체부편 등이며, 옹기 구연부



사송동(사촌) 유물산포지 5

편도 1점 수습되었다. 이중 파선문이 시문된 토기 동체부편은 사송동 유물산포지 1에서 확인된 토기와 달리 토기 내부에 박자로 두드린 흔적이 뚜렷하므로 조선시대의 것으로 판단된다. 채집된 유물의 연대는 조선시대로 판단된다.



사송동(사촌) 유물산포지 5 채집유물



사송동(사촌) 유물산포지 5 조사모습

5. 대왕마을의 문화유적(유교분야)

1) 최기남 묘(崔起南 墓)

최기남 묘는 수정구 신촌동 오야리(왜실) 북서쪽의 능선 끝자락에 위치한다. 묘역의 입지는 서쪽의 봉우리(해발 약 200m)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는 능선 하단부의 남동쪽 해발 약 55m 지점이며, 남동향이다. 묘의 동쪽에는 앞말이 있으며, 23번 국도가 지나간다.

묘역에는 용미를 갖춘 원형의 봉분 1기가 있으며, 봉분 정면에 묘표.상석.4각 향로석.동자석.장명등이 배치되고, 상석 좌우에 8각 망주석.금관조

북형의 문인석이 배치되었다. 한편, 묘표에 配貞敬夫人 全州柳氏라 새겨져 있으므로 부부합장묘임을 알 수 있다.

묘표는 비좌.비신.관석을 갖추고 있는데, 비신과 관석 부분이 세로로 균열되어 접착한 흔적이 보인다. 비신 앞면에는 ‘贈領議政完興府院君崔公起南之墓 贈貞敬夫人全州柳氏祔’라 새겨졌으며, 후면에는 공의 약력 및 건립연대(丙戌8月29日)가 새겨졌다. 관석은 앞면에 태양을 상징하는 圓紋이 있고, 뒷면에는 달을 상징하는 半圓紋이 양각된 日月紋의 양식인데, 이러한 예는 고등동 李菡(1470~1534) 神道碑.李景閔 墓碣 등에서도 확인된다.

최기남(1559~1619)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全州이며, 자는 與叔이다. 호는 晩谷.晩翁.養庵이며, 秀俊의 子이고, 병자호란 때 주화론을 주장하였던 영의정 崔鳴吉의 父이다. 선조 35년(1602)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직에 보임되었으며, 병조좌랑에 올라 지제교에 선발되기도 하였다. 광해군 재위시 사헌부 장령.홍문관 수찬.교리를 거쳐 황해도 암행어사.永興府事를 지냈으며, 후에 아들 최명길에 의해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최기남 묘역



최기남 묘표

2) 안명세 묘(安明世 墓)

안명세 묘는 수정구 심곡동 우정아파트 뒤편의 능선 중턱에 위치한다. 묘역은 서쪽의 인릉산(해발 326.7m)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 중간의 해발 약 130m 지점에 남동쪽을 바라보며 자리 잡고 있는데 능선 상에 있지 않고, 능선에서 남쪽으로 약간 벗어난 지점에 입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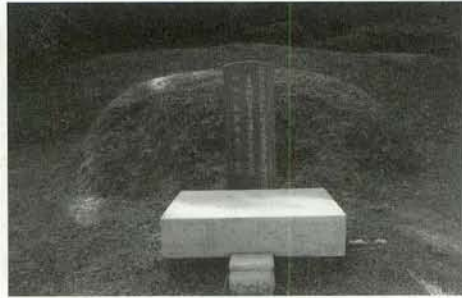
묘역에는 용미와 활개를 갖춘 원형의 봉분 1기가 있으며, 봉분 정면에 묘표·혼유석·상석·4각 향로석이 있고, 상석 좌우에 망주석이 배치되었다. 이들 석물은 원래 시흥에 있던 묘를 1960년대에 시흥 일원이 택지로 개발되면서 이장한 이후에 세운 것들이다.

묘표는 비좌·비신으로 이루어졌는데, 비신은 오석으로 만든 월두형태이며, 건립연대는 1969년 10월이다.

안명세(1518~1548)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順興이며, 자는 景應이다. 부호군 燾의 아들이며, 朴英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중종 39년(1544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정원가주서·예문관검열 등을 지냈다. 1545년(인종 1) 을사사화가 일어났을 때 李諱·鄭順朋 등이 무고한 현신들을 숙청하였던 전말을 담은 時政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명종 3년(1548) 이기 등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武定寶鑑』을 찬집할 때, 을사년 당시 함께 사관으로 있던 韓智源이 시정기 내용을 이기·정순봉 등에게 밀고함으로써 국문을 당하였다. 문제가 된 시정기 내용에는 인종의 장례식 전에 尹任 등 3대신을 죽인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기 등이 무고한 많은 선비들을 처형한 사실, 그리고 이를 찬·반하던 선비들의 명단 등이 담겨 있었다. 그는 국문을 당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이기·정순봉의 죄악을 폭로하였고, 사형에 임해서도 의연한 모습을 남겼다고 한다. 선조 1년(1567)에 신원되어 직첩을 다시 돌려받았다.



안명세 묘역



안명세 묘

3) 이경헌 묘(李景憲 墓)

이경헌 묘는 수정구 상적동 적푸리 대왕저수지 북쪽의 능선 끝자락에 위치한다. 묘역의 입지는 북쪽의 봉우리(해발 300.9m)에서 내려오는 능선 말단부의 해발 약 95m 지점에 남향하고 있으며, 앞쪽으로 대왕저수지를 바라보고 있다.

묘역에는 용미를 갖춘 원형의 봉분 1기가 있으며, 정면에 묘표·혼유석·상석4각 향로석을 두고, 좌우에 소형 문인석·망주석·문인석이 배치되었다. 망주석은 8각이며, 간주석에 석수조각이 양각되었고, 무늬가 화려하다. 문인석은 금관조복형으로笏을 잡은 손의 손가락을 표현하였고, 관복이 화려하다.

墓表는 비좌·비신·관석을 갖춘 형태이며, 관석의 운문이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비신의 앞면에 ‘有明朝鮮兵曹參判贈吏曹判書德水李公景憲之墓 貞夫人坡平尹氏祔左’라고 새겨져 貞夫人 坡平尹氏와의 합葬墓임을 알 수 있으며, 건립연대는 崇禎後55年壬戌(1682, 숙종8) 3月이다. 관석에는 운문을 배경으로 중앙에 圓紋이 굵고 깊게 새겨져 있다.

이경헌(1585~1651)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德水이며, 자는 汝思이고, 호는 芝田이다. 증좌참찬 李函의 曾孫이고, 德安君 李麟祥의

孫이며, 順天府使 通의 子이다. 또한 이경현의 母는 영의정 映寧府院君 柳璥의 딸이다. 광해군 1년(1609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이듬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합격하여 승문원에 발탁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인조를 호종하였고, 환도하여 가의대부에 올라 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를 거쳐 개성유수가 되었다. 1639년 사은부사로 심양에 가서 인조의 병이 심하므로 볼모로 있는 세자를 대신하여 본국에 있는 元孫을 볼모로 하여 세자를 귀국하게 한 것이 왕의 뜻을 어겼다 하여 1640년 南陽에 유배되었으나 세자가 귀국하자 풀려나와 호조·공조참판을 역임하였다. 경기도 관찰사, 강화유수, 공조·예조참판, 동지돈녕부사를 지냈다. 이조판서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 세자좌빈객으로 추증되었다.



이경현 묘역



이경현 묘역



석물이경현 묘

4) 이경민 묘(李景閔 墓)

이경민 묘는 수정구 고등동 고산골 북쪽 능선 끝부분에 위치하며, 부근에 이통 묘, 이경안 묘가 함께 있다. 묘역의 입지는 남서쪽의 봉우리

(해발 229.3m)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는 능선 남동사면의 끝부분으로 남동향이다. 묘역의 북쪽에는 대왕저수지에서 흘러내리는 상적천이 동쪽으로 흐르며, 이와 접하여 내곡-분당간 도시고속도로가 지나간다.

묘역에는 호석을 두른 원형 봉분 1기가 있으며, 봉분 정면에 혼유석.상석.6각향로석을 두고 좌우에 묘표.문인석을 배치하였다. 문인석은 금관조복형으로 길게 늘어진 의습과 굳게 다문 입술과 笏을 잡은 손가락이 뚜렷하게 표현되었다.

墓表는 봉분의 좌측과 우측에 각 1개씩 마주보고 있는데, 좌측의 것은 비좌.비신.관석을 갖춘 형식이며, 우측은 월두형이다. 좌측의 묘표는 비좌가 龜趺의 형태로서 특이한데, 거북의 이목구비 및 등의 龜甲紋이 뚜렷하다. 이와 같은 귀부형태의 비석은 드문 예이다. 비신 앞면에는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事春秋館事行通政大夫行白川郡守李公景閔之墓 贈貞敬夫人全州李氏之墓’ 라고 새겨져 있어 貞敬夫人 全州李氏와의 합장묘임을 알 수 있다. 비석의 건립연대는 崇禎紀元後甲子(숙종 10년, 1684) 三月이다. 관석은 日月汶이 조각되어 특이한데, 앞면에 운문을 배경으로 중앙에 태양을 상징하는 圓紋이 있고, 뒷면에는 운문 배경에 달을 상징하는 半圓紋이 있다. 이러한 일월문의 예는 드문 편인데, 고등동 李菡(1470~1534) 神道碑.신촌동 崔起南(1559~1619) 神道碑 등에서 확인된다.

우측의 墓表는 좌측과 달리 비좌.비신만 갖춘 월두형이다. 비좌에는 안상문과 복판복련문이 새겨져 있다. 비신의 건립연대는 좌측 묘표와 같은 숙종 10년(1684)이다. 한편 후면에 ‘誌石埋在大字碑龜趺前面下’ 라 새겨졌는데 이 내용을 통해 지석이 귀부 앞에 매장되어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경민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德水이며, 자는 汝闇이다. 호는 陽村이며, 順天府使 李通의 2子로 議政公이다. 선조11년(1578)에 등용되어 白川郡守를 지냈으며, 사후 議政府 左議政에 추증되었다.



이경민 묘역



이경민 묘



이경민 묘표



이경민 묘 문인석

5) 이통 묘(李通 墓)

이통 묘는 수정구 고등동 고산골 북쪽 능선 끝부분의 이경민 묘가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남동향으로 묘역의 입지는 이경민 묘와 같다.

묘역에는 용미와 활개를 갖춘 원형 봉분이 있으며, 봉분 정면에 묘표, 혼유석, 상석, 4각 향로석이 있고, 좌우에 동자석, 망주석, 문인석을 배치하였

다. 문인석은笏금을 들고 있는 금관조복형으로 짧은 2단의 옷소매를 하고 있다. 동자석은素髮에 홀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망주석은 8각이며, 석수조각이 양각되어 있다.

墓表는 비좌·비신·관석을 갖춘 형태이다. 비좌에는 안상문과 복련문이 조각되었으며, 관석의 앞면과 뒷면에는 모두 운문을 배경으로 태양을 상징하는 圓紋이 새겨졌다. 비신에는 앞면에 있으며, ‘贈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 領 經筵觀象監事 世子師德豐君行通訓大夫行順天郡守李通之墓 貞敬夫人文化柳氏之墓’라고 새겨져 있어서 貞敬夫人 文化柳氏와의 합장묘임을 알 수 있다.

이통(1556~1620)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天衢이며, 본관은 德水이다. 海豐君 李 誦의 손자. 父는 李元謹이나, 나중에 再從叔父인 監役 李麟祥의 아들로 出繼하였다. 9세 되던 해에 생부가 병사하자 울곡 문하로 들어가 학업을 계속하였다. 29세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다시 明經科의 여러 경전에 모두 합격하였다. 高山 현감, 翁谷 현령, 平昌郡守, 順川郡守 등을 지냈다. 光海君의 집권 때 永昌大君 賜死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뒤로는 세상을 등졌으며, 거문고를 타고 詩歌를 읊으면서 지냈고, 벼슬길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이통 묘역



이통 묘



이통 묘표



이통 묘 문인석



이통 묘 동자석



이통 묘 망주석

6) 이경안 묘(李景顔 墓)

이경안 묘는 수정구 고등동 고산골 북쪽 능선 끝부분에 위치하며, 父 이통의 묘역 하단에 남동향하고 있다. 묘역의 입지는 이통 묘와 같다.

묘역에는 원형의 봉분 1기가 있으며, 봉분 정면에 묘표·혼유석·상석 4각 향로석을 두고, 좌우에 망주석이 배치되었다. 망주석은 간주석에 석수조각이 양각되어 있으며, 짧고 뭉툭하다. 전체적으로 석물의 수효와 양식 면에서 父인 이통 묘에 비해 단출한 편이다.

墓表는 비좌·비신만을 갖춘 월두형인데, 비좌에는 안상문과 단판복련문이 조각되었다. 비신 앞면에는 ‘贈承政院度承旨行司諫院正言李公景顔之墓 贈淑夫人彦陽金氏附左’라고 새겨져 贈淑夫人 彦陽金氏와의 합장묘임을 알 수 있다.

이경안(1572~1614)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德水이며, 자는 汝愚이다. 호는 松石이며, 順天府使 李通의 子이다. 선조 24년(1591)에 진사가 되고, 1605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광해군 원년인 1608년에 學正으로서 重試에 丙科로 급제하였다. 예조좌랑·정언·강서헌

령·중화부사·황해병사를 역임하였다. 이경안은 문예에 뛰어나 당대에 이름을 떨쳤으며, 그의 詩賦는 과거를 준비하는 유생들에 의해 다투어 전사되어 세상에 크게 유행하였다. 관직은 通訓大夫司諫院正言 兼春秋館記事官 贈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 藝文館直提學 尙瑞院正에 이르렀다.



이경안 묘역



이경안 묘표



이경안 묘



이경안 묘 망주석

7) 이우 묘(李堦 墓)

이우 묘는 수정구 고등동 대왕저수지 북동쪽의 작은 봉우리(해발 136m) 중턱에 위치한다. 묘역의 입지는 남쪽의 해발 149.2m의 봉우리에서 북서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남서사면에 앞쪽의 대왕저수지를 바라

보이는 곳이며, 남동향이다. 이우 묘역은 최근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으나, 1994년 문중의 노력으로 확인되어 새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묘역에는 용미와 활개를 갖춘 원형의 봉분 1기가 있으며, 봉분 정면에 혼유석.상석.4각 향로석이 있고, 좌우에 소형 문인석.묘표.8각 망주석을 배치하였다. .

墓表는 비좌.비신.옥개석을 갖춘 형태이다. 비신 앞면에는 ‘朝鮮國兵曹參判德水李公之墓 贈貞夫人全州崔氏附右 贈貞夫人光山金氏附左’ 라고 새겨져 貞夫人光山金氏 와의 합장묘임을 알 수 있다. 비신 후면은 일부 마모되고 결락되어 완전한 판독이 어렵다. 비문 내용은 孫 嘉善大夫黃海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으로 撰者和 書者가 불분명하다. 비석의 건립연도는 崇禎紀元後147年 甲午로 영조 50년(1774)이다.



이우 묘역



이우 묘역 석물

8) 이의번 묘(李宜蕃 墓)

이의번 묘는 수정구 고등동 등자리에 있는 소류지의 서쪽 작은 봉우리(해발 110.7m) 중턱에 위치한다. 묘역의 입지는 북쪽의 인룡산(해발 326.7m)에서 남동쪽의 고등동 방향으로 뻗어 내리는 여러 갈래의 능선에 싸인 골짜기 끝부분의 작은 봉우리에서 앞의 소류지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며 동향이다.

묘역에는 용미와 할개를 갖춘 원형 봉분 1기가 있으며, 봉분 정면에 혼유석·상석·4각 향로석이 있고, 좌우에 묘표·망주석·문인석이 배치되었다. 문인석은 관복을 길게 늘어뜨린 채笏을 마주잡은 형태이다. 망주석은 굽은 8각의 형태이며, 비교적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墓表는 봉분의 정면의 좌우에 있지 않고 봉분의 바로 좌측에 있어서 봉분을 바라보도록 배치되었다. 비좌·비신만을 갖춘 월두형으로 표면의 결락이 심하다. 비신 앞면에는 ‘贈純忠補祚功臣戶曹判書豐城君行敦寧府參奉李公宜蕃之墓 配贈貞夫人安東權氏祔左’라고 새겨져 貞夫人安東權氏와의 합장묘임을 알 수 있다.

이의변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德水이며, 이함의 父로 農城君이다.



이의변 묘역



이의변 묘



이의변 묘표



이의변 묘 문인석



이의변 묘 망주석

9) 이함 묘(李菡 墓)

이함 묘는 수정구 고등동 등자리의 계곡 깊숙한 곳에 위치한다. 묘역의 입지는 남쪽의 이우 묘가 있는 봉우리(해발 136m)에서 동쪽으로 흘러내린 능선의 북사면에 북동향으로 등자리 계곡을 바라보는 위치에 자리 잡았다. 북쪽에는 부친인 이의번의 묘가 있다.

묘역에는 용미와 활개를 갖춘 원형의 雙墳이 있으며, 봉분 정면에 묘표·상석·4각 향로석·장명등이 있고, 좌우에 망주석·문인석이 배치되었다. 상석은 1994년 3월 새로 마련되었다. 한편 1994년 3월 20일에는 묘역을 사초하다가 床石 밑에 灰白磁 陶板으로 된 11장의 誌石을 발견하였는데, 현재 덕수이씨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다. 장명등은 간주석에 5각 형태의 화창이 있으며, 상부 4모 지붕을 갖추고 있다. 문인석은 幟頭로 관복을 길게 발목까지 늘어뜨리고 있다.

墓表는 비좌·비신을 갖춘 월두형이다. 비신 앞면에는 ‘秉忠○義靖國功臣嘉善大夫海豐君贈議政府左參贊李公菡之墓 貞夫人密陽朴氏祔左’의 비문이 있어 좌측의 봉분이 貞夫人 密陽朴氏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비석은 ‘崇禎紀元後再壬子 八月 日 改立’으로 영조 8년(1732)에 건립되었다.

이함(1470~1534)은 조선 전기의 무신으로 字는 子實이며, 본관은 德水이다. 이의번의 5子 중 3子이다. 이함은 활쏘는 재주가 극히 절묘하여 20세에 武才로 뽑혀서 궁중을 숙직하며 지키는 장교가 되었다. 성종 22년(1491) 女眞族이 北邊에 침범했을 때 左議政 都元帥 許琮의 휘하장교로 종군하여 공을 세워 修義副尉와 定略將軍에 제수되었다. 이후 연산군 11년(1505)에 建功將軍에 올랐으며, 中宗反正(1506) 때 공을 세워 靖國功臣이 되었고, 다시 2계급 특진하여 折衝將軍에 제수되었다. 중종 2년(1507) 嘉善에 오르고 다음 해 嘉善大夫 朔州府使兼 兵馬僉節制使 海豐君에 봉해졌다. 중종 24년(1529) 聖節使로 明에 다녀온 후 海豐君 奉朝賀로 임명되었다. 順天府使 재임 하던 중종 29년(1534) 병으로 관사에서 卒하였다.



이함 묘역

10) 이심 묘(李深 墓)

이심 묘는 수정구 고등동 등자리 북쪽 능선 끝부분의 중턱에 위치한다. 묘역의 입지는 북쪽의 인릉산(해발 326.7m)에서 남동쪽으로 뺀어 내린 능선의 말단부의 해발 약 70m 지점에서 등자리 마을을 바라보는 곳으로 남동향이다.

묘역에는 용미와 활개를 갖춘 원형의 雙墳이 있으며, 봉분 정면에 상석4각 향로석.장명등이 있고, 좌우에 비좌8각 망주석이 배치되었다. 장명등은 상대에 방형의 화창이 있고, 하대에는 안상문과 복련문이 화려하게 조각되었다.



이심 묘역



이심 묘

11) 이혜 묘(李穡 墓)

이혜 묘는 수정구 고등동 등자리 남쪽 능선 중간쯤의 해발 약 115.4m 지점 능선상에 위치하며, 부근에 이우 묘와 이함 묘가 있다. 이혜 묘는 원래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에 있던 것을 도시개발에 따라 이곳으로 이장한 것이다.

묘역에는 2기의 봉분이 있는데 그 중 이혜 묘는 위쪽에 있으며, 아래쪽의 봉분에는 通德郎 李喜濡와 配恭人達成徐氏가 합장되어 있다. 이혜 묘역에는 용미를 갖추고 있으며, 봉분 정면에 혼유석.상석.4각 향로석이 있고 좌우에 묘표.8각 망주석이 배치되었다.

墓表는 비좌.비신.옥개석을 갖춘 형태인데, 비신 앞면에 ‘朝鮮大司諫 李公穡之墓 贈貞夫人平山申氏祔左 貞夫人晉州柳氏祔右’의 비문이 있어서 이혜와 함께 貞夫人 平山申氏.貞夫人 晉州柳氏가 함께 묻혔음을 알 수 있다. 비문은 앞면에 韓護(1543~1605)의 글을, 뒷면에 중국 唐의 명필 顏真卿(709~785)의 글을 집자하였다. 集字碑는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韓.中 역대 명필과 서예에 대한 깊은 연구의 결과물로 등장한 특수한 형태의 입석 방법이다. 眞景時代에 크게 유행하였는데, 특히 정조대(1777~1800)에 많은 수량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비석의 건립연대는 ‘崇禎紀元後3己丑 月 日立’으로서 영조 45년(1769)이다.

이해(1635~1679)는 眉江公 李景曾의 3자로 字는 次山이며, 호는 玄甫이다. 효종 5년(1654)에 진사 장원을 하고, 현종 원년(1660)에 增廣文科에 급제하여 벼슬은 대사간에 이르렀으며, 知製敎를 겸하였다. 문장에 뛰어나 부친인 眉江公 李景曾의 행장을 찬하기도 하였다.



이해 묘역

12) 천림산 봉수(天臨山 烽燧)

천림산 봉수는 수정구 금토동의 淸溪山(해발 547.2m)에서 북동쪽으로 뻗은 산줄기 끝부분의 해발 약 170m 지점 능선 위에 위치한다.

천림산 봉수는 조선시대 전국 5路의 봉수노선 중 第2路의 봉수이다. 제2로의 봉수체계는 釜山 東萊 多大浦鎭 鷹峰에서 시작하여 경상·충청지역의 여러 봉수를 거쳐 경기지역의 望夷城(안성) → 巾之山(용인) → 石城山 烽燧(용인)를 차례로 거쳐 천림산 봉수에 도달하도록 되어있다. 천림산 봉수는 서울의 남산 봉수에 전달하는 경기도 관내의 마지막 봉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南쪽으로 용인 석성산 봉수와는 18.75km,

北쪽으로 경성 목덕산봉수와는 16km의 거리를 두고 있다.

천림산 봉수는 1999년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봉수대의 규모는 동서길이 33.6m, 남북길이 12m이며, 면적은 333m²(약 100평) 정도이다. 현재 천림산 봉수는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철책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천림산 봉수 전경



천림산 봉수 전경

13) 권징 묘(權徵 墓)

권징 묘는 수정구 금토동 효자문골 서쪽에 있는 능선의 끝부분에 위치한다. 묘역의 입지는 북쪽의 봉우리(해발 259m)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오는 능선 끝부분이 길게 뻗어 동서로 효자문골과 두레이골을 가르는데, 그 능선 말단의 해발 약 100m 지점에 자리 잡고 있어서 좌우로 마을을 굽어볼 수 있다.

묘역에는 용미와 활개를 갖춘 원형의 봉분 1기가 있으며, 봉분 정면에 혼유석, 상석, 4각 향로석을 두고 좌우에 문인석을 배치하였다. 묘표는 봉분 좌측에 2기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1988년에 건립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 보다 오래된 것이다.

新墓表는 비좌·비신·이수를 갖추고 있는데, 비신에는 ‘松菴安東權公諱徵墓碣銘并序’의 비문이 있다. 비제는 ‘有明朝鮮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事同知經筵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

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安東權公諱贈字而遠之墓配貞夫人贈貞敬夫人全州李氏祔左' 이고, 건립연대는 단기4321년(1988)이다.

舊墓碣은 비좌.비신을 갖춘 월두형이다. 비좌에는 안상문과 단판복련문이 조각되어 있다. 비신 앞면은 표면결락이 심하여 일부 해독되지 않는 글자가 있다. 비문 내용은 '有明朝鮮資憲大夫兵曹判書---知經筵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權公諱贈字而遠之墓 配貞夫人贈---氏祔左' 로 관독된다.

권징(1538~1598)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安東이며, 자는 而遠이다. 호는 松菴이며, 贊成事 權近의 후손이자 贈執義 權大器의 孫이며, 菴의 子이다. 명종 17년(1562) 別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檢閱이 되고 명종 22년(1567)에 注書가 되었다가 이듬해 병조좌랑으로 春秋館記事官을 겸직하여 『명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선조 19년(1586)에 형조참판이 되고 이를 전후해서 충청도와 함경도 관찰사를 지냈다. 선조 22년(1589) 병조판서로 승진하였으나 西人 정철이 실각할 때 평안도 관찰사로 좌천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기도지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기도 관찰사에 특별히 임명되었으나 왜군을 막지 못하고, 朔寧에 들어가 흩어진 군사를 모아 군량미 조달에 진력하였다. 權慄 등과 함께 경기.충청.전라도의 의병을 규합하여 왜병과 싸웠다. 1593년 서울탈환 작전에 참가하였으며, 明 제독 李如松이 추진하는 화의에 반대하고 끝까지 왜병을 토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후 공조판서가 되어 전년 9월에 왜병에 의해 파헤쳐진 宣陵과 靖陵의 보수를 주관하였다. 1594년 병으로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도 상소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주 개진하였다. 사후 領議政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貞翼이다.



권징 묘역



권우 묘역

14) 권우 묘(權愚 墓)

권우 묘는 수정구 금토동 효자문골 북서쪽 능선의 하단에 위치한다. 묘역의 입지는 북쪽의 봉우리(해발 259m)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의 아래쪽 해발 115m되는 지점으로 아래로 효자문골이 남동쪽으로 내려다보인다. 권우 묘 앞에는 아들인 권굉의 묘가 있다.

묘역에는 용미와 활개를 갖춘 원형의 봉분이 있으며, 봉분 정면에는 묘표·혼유석·상석이 있고, 좌우에 문인석을 배치하였다. 문인석은 幃頭로 작고 통통한 모습이다.

墓表는 비좌·비신을 갖춘 월두형이며, 비신 앞면에는 ‘通訓大夫原州牧使權愚之墓 淑人延日鄭氏附葬’의 비문이 있어 淑人 延日鄭氏와의 합장 묘임을 알 수 있다.

권우는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希顔이다. 權近의 현손으로 安襄公 權攀의 장손이며, 都事 활의 子이다. 蔭補로 벼슬에 나아가 通政大夫로서 原州牧使에 이르렀다. 뒤에 아들과 손자 등이 貴하게 됨에 따라 司憲府 大司憲으로 추증되고 永嘉君에 봉해졌다. 권우의 생몰연대는 미상이다.

15) 권광 묘(權炤 墓)

권광 묘는 수정구 금토동 효자문골 북서쪽 능선의 하단부의 권우 묘 아래에 위치한다. 묘역의 입지는 권우 묘와 같다.

묘역에는 용미와 활개를 갖춘 원형의 쌍분이 있으며, 봉분 정면에는 묘표, 혼유석, 상석 4각 향로석이 있고, 좌우에 문인석이 배치되었다.

墓表는 비좌, 비신을 갖춘 월두형이며, 비신 앞면에는 ‘贈吏曹判書花城君行忠佐衛副使果權炤之墓 貞夫人礪山宋氏之墓’의 비문이 있다.

권광(?~1568)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堅甫이다. 양촌계 安襄公 權攀의 증손으로 永嘉君 權愚의 子이다. 조광조의 문하에서 배웠으나 중종 14년(1519) 己卯土禍에 스승 조광조를 비롯한 士林이 화를 입은 이후 出仕하지 않고 成守琛李文樞 등과 더불어 도학에 전념하였다. 선조 원년(1568)에 卒하였고, 공의 아들 權微의 존귀한 신분으로 인하여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貳師花城君行禦侮將軍忠佐衛副司直’으로 가증되었다.



권광 묘역

16) 남공철 묘(南公轍 墓)

남공철 묘는 수정구 금토동 능안골 북쪽 능선의 남사면에 위치한다. 묘역의 입지는 서쪽의 국사봉(해발 539m)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중간 부분의 해발 약 165m 지점의 남사면에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아래의 능안골.농막골.두레이골 및 금호천이 내다보인다.

묘역에는 원형의 봉분 1기가 있으며, 봉분 정면에 혼유석.상석.6각 향로석을 두고 좌우에 8각 망주석이 배치되었다. 상석은 백색대리석으로 문고리문양이 4면에 양각된 두 개의 고석이 받치고 있어 특이하다.

墓表는 봉분의 우측에 세워져 봉분을 바라보고 있다. 비좌.비신.옥개석을 갖춘 형태이며, 비신에는 남공철이 생전에 스스로 自撰한 비문이 새겨져 있다. 비문 내용은 ‘○相大壑○奎章閣學○○○金陵南公自碣銘’이라 상단에 적고, 비제는 ‘有明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致仕奉朝賀金陵南公自碣銘’이다. 비석의 건립연대는 ‘崇禎紀元後4乙未’로서 현종 15년(1835)이다.

남공철(1760~1840)은 조선 후기의 문장가.정치가로 본관은 宜寧이며, 자는 元平이다. 호는 金陵.思穎이며, 晩號는 思穎居士이다. 父는 大提學 文淸公 雷淵 南有容이다. 정조 4년(1780)에 초시에 합격하고, 1784년에 父 南有容이 정조의 사부였던 관계로 蔭補로 세마를 제수받았다. 정조 16년(1792)에 친시문과에 丙科로 급제하였다. 곧이어 홍문관 부교리.규장각 직각에 임명되어 『奎章全韻』의 편찬에 참여하면서 정조의 지극한 우대를 받았다. 초계문신에 선임되었으며, 金祖淳.沈象奎와 함께 패관문체를 일신하려는 정조의 문체반정운동에 지목되어 그 뒤 순정한 六經古文을 깊이 연찬함으로써 정조치세에 나온 인재라는 평을 받았다. 정조대에는 주로 대사성으로서 후진 교육문제에 전념하였다. 순조 즉위 후 『정종실록』 편찬에 참가하였으며, 아홉번 이조판서를 제수받고, 대제학을 역임하였다. 순조 7년(1807)에는 동지정사로서 연경에 다녀왔고, 순조 17년(1817)에 우의정에 임명된 뒤 14년간이나 재상을 역임하였으며, 순조 33년(1833)에 영의정으로 치사하여 奉朝賀가 되었다. 평소에 金相

任成大中李德懋 등과 친하게 지내면서 독서를 좋아하였고, 경전의 뜻에 통달하였다. 歐陽修의 문장을 純正한 법도라 하여 가장 존중하였고, 많은 金石文碑碣을 남긴 당대 제일의 문장가였다. 순조·익종의 『列聖御製』를 편수하였고, 저서로는 『高麗名臣傳』, 자편의 시문집으로 『歸恩堂集』, 『金陵集』, 『潁翁續藁』, 『潁翁再續藁』, 『瀛隱文集』 등이 있다. 아울러 城南市 분당구 율동 소재 父 文淸公 南有容(1698~1773)의 墓碣을 직접 撰한 것 외에, 楊州郡 주내면 광사리의 趙尙綱 神道碑, 南楊州市 별내면의 南龍翼 神道碑와 南在 神道碑文을 書나 篆하였다.



남공철 묘역

17) 남원윤씨 묘역

남원윤씨 묘역은 수정구 금토동 능안골 서쪽에 있는 능선의 북동쪽 사면에 위치한다. 묘역의 입지는 서쪽의 청계산(해발 615m)과 국사봉(해발 539m)의 중간쯤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끝부분과 능안골이 만나는 해발 약 125~175m 범위의 북동사면에 자리 잡아 앞에 있는 능

안골이 내다보인다.

묘역 내에는 위로부터 차례로 尹克新,尹曄,尹衡哲,尹噉,尹衡俊의 묘소가 자리 잡고 있다. 위로부터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원윤씨 묘역 전경



남원윤씨 묘역 전경

윤극신 묘는 용미와 활개를 갖춘 원형의 쌍분으로, 봉분 정면에 비좌, 혼유석, 상석, 4각 향로석을 두고 좌우에 8각 망주석, 문인석이 배치되었다.

墓表는 봉분 좌측에 있는데, 비좌, 비신, 옥개석을 갖추고 있으며, 비신 앞면에 ‘有明朝鮮贈左贊成行弘文館應教尹公克新之墓 貞敬夫人固城南氏 祔左’의 비문이 있어서 우측이 윤극신 묘이고, 좌측은 配貞敬夫人 固城南氏의 묘임을 알 수 있다.

윤극신(1527~1587)은 본관은 南原으로 자는 伯修이며, 自新의 再從弟이다. 명종 3년(1548) 부친인 醉夫公이 被禍되는 것을 보고는 杜門不出하였다. 윤극신은 춘추관을 거쳐 吏曹佐郎을 지냈으며, 뒤에 林川郡守를 자청하고 가서 학교를 일으키고, 홀아비와 과부



윤극신 묘역

로 지내는 사람들을 구휼하여 청송이 자자하였다. 윤극신은 홍문관 교리로卒하였는데, 뒤에 공의 季子 孝貞公 噉이 崇品(一品)에 오르게 됨으로서 左贊成에 추증되었다.



윤극신 묘



윤극신 묘 석물

윤엽 묘는 윤극신 묘보다 한 단 아래의 좁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윤엽 묘는 용미와 활개를 갖춘 원형의 쌍분으로 봉분 정면에 묘표, 혼유석, 상석, 4각 향로석이 있고, 좌우에 8각 망주석, 문인석이 배치되었다.

墓表는 비좌, 비신을 갖춘 월두형인데, 비신 앞면에는 ‘司諫贈都承旨南原尹公諱曄墓 淑夫人昌寧成氏祔’의 비문이 있어서 우측이 윤엽 묘이고, 좌측은 配淑夫人 昌寧成氏의 묘임을 알 수 있다.

윤엽(1549~1604)은 贈左贊成 克新의 장자로 자는 汝晦다. 선조 13년(1580)년에 문과급제하여 翰林吏部郎官을 거쳐 弘文館 교리에 이르렀다. 외직으로 나아가 舒川郡守로 있으면서卒하였다



윤엽 묘역.



윤엽 묘표



윤엽 묘역 석물

윤형철 묘는 윤엽 묘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윤형철 묘는 원형의 쌍분으로 봉분 정면에 혼유석, 상석, 4각 향로석이 있고, 좌우에 묘표, 문인석, 망주석이 배치되었다.

墓表는 비좌, 비신, 옥개석을 갖춘 형태인데, 비신 앞면에 ‘贈執義行戶 曹佐郎南原尹公諱衡哲之墓 贈淑人德水李氏祔左’의 비문이 있어 우측이 윤형철 묘이고, 좌측이 淑人 德水李氏 묘임을 알 수 있다. 윤형철은 윤돈의 次子이다.



윤형철 묘역



윤형철 묘



윤형철 묘 석물

윤돈 묘는 次子인 윤형철의 묘 아래에 위치하므로 逆葬이 되고 있다. 용미를 갖춘 묘역 중앙에는 원형의 쌍분이 있으며, 봉분 정면에 혼유석. 상석.4각 향로석을 두고 좌우에 8각 망주석.문인석이 배치되었다. 망주석은 간주석에 석수가 양각되어 있으며, 굽고 우람하다. 문인석은 金冠朝服形으로 耳目口鼻가 뚜렷한데 큰 눈, 큰 코와 ‘一’자로 다문 입 및 볼의 광대뼈가 튀어나온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笏을 마주잡은 두 손은 손가락의 표현이 없으며, 짧은 옷소매에 관복은 2단으로 ‘八’자형을 하고 있다. 크기는 좌우가 높이 2m, 얼굴부분 56cm로, 윤돈 묘역의 望柱石과 文人石은 금토동 남원윤씨 선영의 석물 중 가장 우수하다.

墓表는 비좌.비신.옥개석을 갖춘 형태인데, 비신 앞면에 ‘有明朝鮮國資憲大夫行禮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弘文館大提學五衛都摠府都摠管贈諡孝貞尹公諱噉墓 貞敬夫人全州李氏祔左’의 비문이 있어 우측이 윤엽 묘이고, 좌측은 貞敬夫人 全州李氏의 묘임을 알 수 있다. 비석의 건립연대는 崇禎後4辛酉로 철종 12년(1861)이다.

윤돈(1551~1612)의 字는 汝昇이며, 호는 竹窓이고, 贊成公 尹克新의 아들이다. 공은 일찍이 高峯 寄大升과 月川 趙穆을 따라 遊學하고 退陶

선생의 문하에 출입하였다. 宣祖 19년(1585)에 文科及第하여 벼슬은 弘文館 丁字에서 禮曹判書에 이르렀다. 벼슬에 나아간 지 10년 동안에 吏曹郎官, 議政府舍人, 弘文館應敎, 典翰, 直提學, 副提學학을 지냈다.



윤돈 묘역



윤돈 묘표



윤돈 묘 석물

윤형준 묘는 부친인 윤돈 묘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묘역 중앙에는 원형이 쌍분이 있으며, 정면에 혼유석.상석.4각 향로석을 두고, 좌우에 묘표.망주석을 배치하였다.



윤형준 묘역.

18) 원경하 묘(元景夏 墓)

원경하 묘는 수정구 사송동 설계골 소로변의 남쪽에 위치하며, 남향이 다.

묘역은 용미와 활개를 갖춘 원형의 봉분이며, 봉분 정면에 혼유석.상석.4각 향로석을 두고 좌우에 8각 망주석.묘표를 배치하였다. 상석은 문고리문양이 4면에 양각된 2개의 고석이 받치는 특이한 형태이며, 망주석은 간주석 좌우에는 꼬리를 화려하게 조각하였다.

墓表는 봉분 좌측에 건립되었는데, 비좌.비신.옥개석을 갖춘 형태이며, 비신 앞면에는 ‘有明朝鮮蒼霞退隱元公諱景夏之墓 貞敬夫人申氏附左’의 비문이 있어서 貞敬夫人 申氏의 묘와 합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뒷면에는 ‘居士表集唐褚遂良書’의 비문이 있다. 이로 보아 원경하 묘표는 중국 唐나라의 명필 저수량(596~658)의 글씨를 집자하여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저수량의 글씨로 집자비를 조성한 예는 광주군 오폭면 신현리 徐命珩(1687~1750)의 神道碑와 더불어 극히 드물어 귀한 자료가 된다.

원경하(1698~1761)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原州이며, 자는 華伯이다. 호는 蒼霞.肥窩로서 효종의 부마인 興平尉 元夢麟의 손자이며, 목사 元命龜의 子이다. 경종 원년(1721)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영조 12년(1736)에 世子翊衛司副率로 정시문과에 장원하였다. 영조 15년(1739)에 영조의 뜻을 받들어 緩少계열과 함께 정언으로 봉당이 나라를 그르치는 화근이 된다는 것과 탕평책을 진언하였다. 아울러 신임 사화로 화를 입게 된 조태억.조태구 등을 伸雪하는데 앞장섰다. 영조 21년(1745)에는 부제학으로 호남사정에 밝다고 하여 湖南陳田改量使가 되었다. 그는 大蕩平을 창도하기도 하여 영조의 신임이 두터웠고 그의 탕평책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판돈녕부사로 치사하여 奉朝賀가 되었다. 사후 왕이 친히 제문을 지었으며, 해당 관조에 명을 내려 치제하게 하고 관재를 관급하였다. 시호는 忠文이며,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蒼霞集』 10권이 전한다.



원경하 묘역



원경하 묘표



원경하 묘

19) 원의손 묘(元義孫 墓)

원의손 묘는 수정구 사송동 소로변 북쪽에 위치하며, 남향이다. 원의손 묘역이 있는 소로변 남쪽에는 부친인 원경하 묘역이 있다.

묘역에는 용미와 활개를 갖춘 원형의 봉분이 있으며, 봉분 정면에 혼유석.상석.6각 향로석을 두고, 좌우에 8각 망주석.묘표가 배치되었다. 망주석은 크고 장대한 형태인데, 父 원경하 묘의 망주석과 달리 간주석에 아무런 무늬가 없다.

墓表는 비좌.비신.옥개석을 갖춘 형태이며, 비신 앞면에 ‘有明朝鮮司憲府大司憲 元公諱義孫之墓’의 비문이 있다. 후면에는 ‘有明朝鮮國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兼同知經筵春秋館事元公墓表’의 비문이 있다.

원의손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원의손 묘역

본관은 原州이다. 忠文公 元景夏의 차남으로 대사헌에 올랐다.



원의손 묘



원의손 묘표

20) 이진수 묘(李晋秀 墓)

이진수 묘는 수정구 사송동 뱀골 농막마을의 동서로 좁고 길게 형성된 나지막한 구릉 아래에 위치하며 남향이다.

묘역은 활개를 대신하여 높은 둔덕과 용미를 갖추었으며, 원형의 봉분 1기가 있다. 봉분 정면에는 혼유석.상석.6각 향로석이 있으며, 좌우에 묘표.8각 망주석이 배치되었다.

墓表는 비좌.비신.옥개석을 갖춘 형태이며, 비신 앞면에 ‘有明朝鮮國通政大夫承政院右承旨李公諱晋秀之墓 貞夫人林川趙氏祔左’ 라 하여 貞夫人 林川趙氏와의 합장묘임을 알 수 있다. 비석의 건립연대는 崇禎紀元後3癸亥으로 순조 3년(1803)이다.



이진수 묘역



이진수 묘



이진수 망주석

21) 양성이씨 묘역(陽城李氏 墓域)

양성이씨 묘역은 수정구 수자원공사 성남관리단 남서쪽의 나지막한 구릉 위에 조성되었으며, 그 남서쪽으로 내곡-분당간 도시고속국도가 지나간다. 묘역의 방향은 북동향이다. 양성이씨 가문은 조선 초·중엽에 대대로 무반가문을 이루었다.

묘역의 제일 높은 곳에는 高麗三重大匡輔國 陽城君 秀匡의 8세손 李思恥의 묘소가 있으며, 차례로 李蒙·李潤終·李養正·李芸 및 그 配의 墓 11기가 놓이고, 묘역의 가장 낮은 곳에는 兵曹參議 李榮과 配淑夫人全州李氏淑夫人星州李氏의 壇이 위치한다. 아울러 묘역 입구 李營의 壇 우측에는 李芸·淑人晉州鄭氏·李養正·李潤終·李思恥 등 5기의 墓表를 모아 놓았는데, 동남향하여 李營의 壇을 향하고 있다. 묘역 아래로부터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성이씨 묘역



전경 양성이씨 묘역 묘표군

이영 묘역에는 원형의 쌍분이 있으며, 쌍분의 정면에 묘표가 있고, 우측 봉분 앞에 상석.4각 향로석을 두었으며, 좌우에 망주석을 배치하였다.

墓表는 비좌.비식.옥개석을 갖춘 형태이며, 비신 앞면에 ‘贈兵曹參議 陽城李公諱榮之墓 淑夫人全州李氏祔 淑夫人星州李氏祔 坤坐’의 비문이 있다.



이영 묘역



이영 묘



이영 묘표

이운 묘역에는 원형의 쌍분이 조성되었으며, 정면에 묘표.상석.4각 향로석을 두고, 좌우에 문인석을 배치하였다.

墓表는 비좌.비신을 갖춘 월두형이며, 비신 앞면에 ‘宣略將軍李公芸之墓 令人淸州韓氏 雙兆 坤坐’의 비문이 있다.



이운 묘역



이운 묘표



이운 묘



이운 묘 문인석

이양정 묘역에는 원형의 봉분 1기가 있으며, 봉분 정면에 상석.향로석을 두고, 좌우에 묘표.문인석을 세웠다.

墓表는 비좌.비신.옥개석을 갖춘 형태이며, 비신 앞면에는 ‘禦海將軍行上護軍陽城李公養正之墓 淑人晉州鄭氏 上下兆 坤坐’ 라는 비문이 있다.



이양정 묘역



이양정 묘



이양정 묘 문인석

이윤종 묘역에는 원형의 봉분 1기가 있으며, 봉분 정면에 상석.향로석을 두고, 좌우에 묘표.망주석을 세웠다.

墓表는 비좌.비신을 갖춘 월두형이며, 비신 앞면에는 ‘禦侮將軍行蛇渡鎮水軍僉節制使 李公潤終之墓 淑人昌原柳氏 上下兆 坤坐’의 비문이 있다. 비석의 건립연대는 嘉靖三十七年 戊午八月 立石’의 건립연기를 통해 명종 13년(1558)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윤종 묘역



이윤종 망주석



이윤종 묘

이몽 묘역에는 원형의 쌍분이 조성되었는데, 우측은 이몽과 淑人 慶州 金氏의 합장묘이며, 좌측은 淑人 淸州韓氏의 묘이다. 각각의 봉분 정면에 상석, 4각 향로석이 있고, 좌우에 망주석이 배치되었다.

이몽 묘표는 비좌, 비신, 옥개석을 갖춘 형태이며, 비신 앞면에 ‘通訓大夫 行珍島郡守 陽城李公諱夢之墓 淑人 慶州金氏 祔 坤坐’라는 비문이 있다. 좌측의 묘표 정면에는 ‘숙인 청주 한씨지묘’라는 비문이 있다.



이몽 묘역



이몽 묘

이사치 묘는 원형의 봉분으로 조성되었는데, 봉분 중앙에 상석4각 향로석을 두고, 봉분 좌측에 묘표를 세웠다.

묘표는 비좌·비신을 갖춘 월두형이며, 비신 앞면에 ‘判司宰監事李公之墓 淑人淸州韓氏祔’의 비문이 있다.



이사치 묘역

6. 대왕마을의 문화유적(민속분야, 기타)

1) 심곡동 거북바위(深谷洞 거북바위)

심곡동 거북바위는 수정구 심곡동 효성고등학교 입구로 들어가는 진입로 건너편에 위치한다. 2001년도에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이 조사하여 발간한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에는 거북바위의 위치가 효성고등학교 정문 우측의 담장 앞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그 이후 최근 몇 년 사이에 위치가 변동된 듯하다. 또한 위 보고서에서 거북바위는 백색대리석 대좌 위에 놓여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거북바위보다 큰 대형 화강암 위에 놓여있다. 이 역시 거북바위의 위치를 이동하면서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거북바위는 몸길이 1m, 높이30cm 정도의 검은 암석인데, 거북바위의 명칭은 말안장 처럼 가운데 부분이 움푹 들어간 모습을 보고, 작은 거북을 연상하여 지어낸 듯하다.

일설에 의하면, 현재는 복개되었지만 효성고등학교 옆은 본래 하천이 흘렀으며, 하천의 중간에 커다란 바위가 있고 그 위에 거북바위가 있었다. 거북바위는 머리는 동쪽의 현재, 성남 군비행장인 건너 마을인 용인군 수진리의 전답을, 항문은 심곡동을 향하고 있었는데 건너 수진리 마을의 곡식을 입으로 물어 심곡동 마을로 똥을 누는 형국이었어서 마을이 부자였다고 전한다. 때로는 건너 마을 사람들이 놀러왔다 술을 마시고 갈 때면 거북바위 때문에 자기네 마을이 안 된다고 바위를 덮어놓기도 하였다고도 한다. 이 바위에 특별한 치성은 드리지는 않았지만 마을사람 모두가 귀히 여겼으며, 하천이 복개될 때도 거북바위는 따로 보존하였고, 최근에 옮겨질 때에도 위치만 약간 이동되었을 뿐 잘 남아서 현재에 이른다.



심곡동 거북바위



심곡동 거북바위

2) 심곡동 우두물(深谷洞 우두물)

우두물은 수정구 심곡동 깊은 골의 마을회관에서 소로를 따라 더 올라가 안국선원을 지나면 나오는 소로변 우측에 위치한다. 현재 일반 주택의 당장 경계면과 같은 선상에 놓여있다.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약 70cm이며, 둘레 285cm의 원형이다. 현재는 시멘트로 보수된 상태이나 과거에는 이보다 더 컸다고 한다. 우물 상부에는 직경 1m의 원형 뚜껑을 덮어 놓았다.

우두물은 현재 食水로 사용되지는 않으나, 예전부터 동네의 주요 식수원으로 사용되었으며, 바닥은 돌이고 양수기로 아무리 펴도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우물 깊이는 총 310cm이며, 수면 깊이는 220cm이다.

도시계획상 도로확장 예정지로서 멸실의 위기에 놓여 있으나 정확한 고증을 거쳐 복원하여 보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곡동 우두물



심곡동 우두물

3) 고등동 산신각(高登洞 山神閣)

고등동 산신각은 수정구 고등동 등자리 용천사 사찰 뒤의 6~7부 능선 상에 北向하고 있다. 현재 용천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슬라브 맞배지붕에 회색벽돌로 보수하여 단장하였다.

산신도량으로 기도가 효험이 있다고 하며, 건물 내의 채색 山神圖(131×98cm)는 산신 앞의 옆드려 있는 호랑이 등 위에 산신령이 왼손은 수염을 잡고 오른손은 무릎 위에 올려 검지가 지면을 향하고 있다. 또 정면 우측에는 남녀 동자가 시립하고 있고, 좌측에는 호랑이가 산신 앞에 엎드린 채 머리를 정면으로 하고 있다.



고등동 산신각



고등동 산신각 내부 산신도

< 윤용희 >